

2014<겨울>

조각보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세워갈 공동체는 한두 사람의 헌신이 아닌,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색깔의 천과 실들이 모여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THE patchwork  
of GOD 2<sup>nd</sup>



사랑의 손길  
사랑의 손길

조각보,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 2014년 겨울 / 2호 >

예배하는 공동체



- 07 빛을 깊어요
- 09 서로 채우는 어슬픈 창립예배 / 김호선
- 11 다음에 없는 것
- 13 심심한 예배 / 김미경A
- 14 첫 성찬식의 은혜 나눔
- 15 대강당,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 17 조각보 한조각 / 강경화
- 19 세례간증  
십자가의 평안 / 이승언, 갈중 / 한동훈
- 23 다시 설교노트를 꺼내며 / 김정희
- 25 찬양의 은혜  
예배 찬양을 섬기며 / 김준영, 다음종창단으로 오세요 / 이승준
- 29 개척예배 그리고 1년
- 31 Hello, Coffee Please

훈련하는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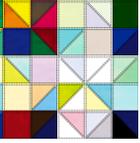


- 35 1호점의 은혜
- 37 조각보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 47 초짜 순장의 은혜 / 박경연
- 49 부부 신앙 편지 / 정기용, 소윤정부부
- 51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 53 성경연구반,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 / 박영일
- 55 돼지 저금통 가출사건 다음
- 57 가정예배, 하나님의 지팡이 / 김영인
- 59 송천홀을 아십니까?
- 61 주일학교 이야기  
그냥 / 학부모 신원선, 언젠가부터 / 학부모 김유진  
숨쉬는 것처럼 / 학부모 정아라, 인큐베이터 / 교사 송형지  
교사의 선생님 / 교사 허찬미
- 67 흠 있는 한조각 / 오동진 전도사
- 69 발화점 수련회 / 중1 김희원, 거기서 거기? / 고2 정두호,  
기대하지 않은 선물 / 고2 서원석, 아버지 마음 / 교사 한동기
- 73 수험생 기도회  
찾고 돌보는 작은 여행 / 김세정 + 학부모 감사나눔
- 75 하나님 나라의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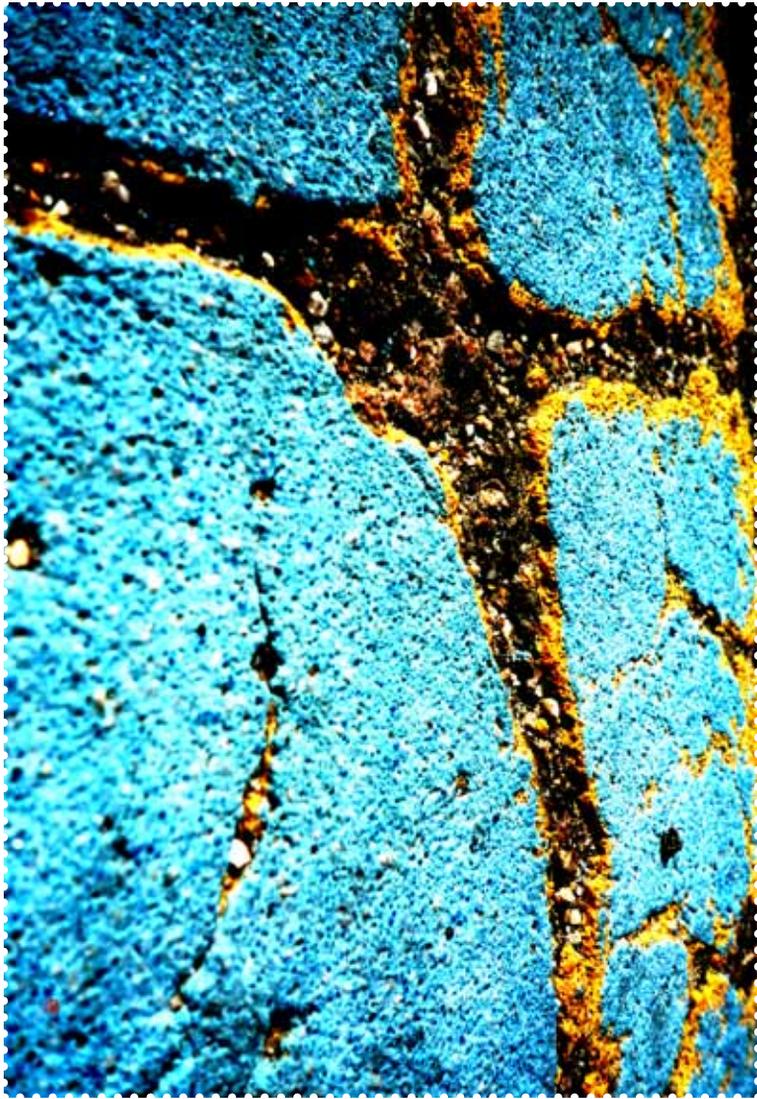
증거하는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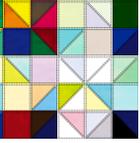
- 79 선교적 교회를 그리며
- 81 다음하우스호 VS 2호
- 83 모르고 가는 길이라 은혜가 더하다 / 김보아
- 85 꿈을 심는 도서관 / 박선아
- 87 3퍼센트의 가치를 배우다
- 89 감사드리며  
도서관 학부모 감사편지 / 이역희, 남순아
- 91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 93 작은자를 향한 꿈
- 95 캠페션 아이리 리싱의 편지 / 김미희
- 97 탈북청소년학교, 두리하나학교  
치유의 밤상 / 윤재임, 여명학교 학생 감사편지
- 99 영어도서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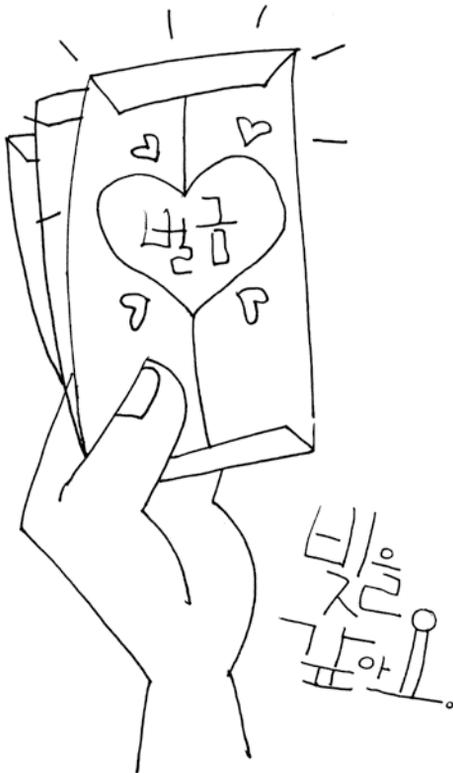
THE  
patchwork  
of GOD 2<sup>nd</sup>







THE  
patchwork  
of GOD 2<sup>nd</sup>



# 빛은 기쁨이다

1. 1979년 어느 날 강원도 홍천군에서, 어떤 남자가 약초를 캐러 갔다가 담뱃불을 잘못 떨어뜨리는 바람에 국유림의 일부를 태웠습니다. 국유림 관리소는 이 남자에게 산불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벌금 1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신에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자가 중풍을 앓다가 숨졌고, 부인에게 “내 대신 꼭 갚아 달라.” 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2. 부인은 빛이나 되는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 매년 형편에 따라 3만원에서 1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너무 늘어 농사를 지을 근력조차 없어지자 일당 7천원에 허드렛일로 살아가면서도 돈을 모아 단돈 몇만 원이라도 해마다 빚진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2001년 가을에야 드디어 벌금을 완납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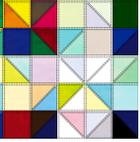
3. 처음 책에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지어낸 이야기인줄 알았습니다.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도 시침 톱 떼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있을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실화라고 합니다. 실제 이야기라고 하니 이번에는 이런 어려운 형편의 사람에게 돈을 받는 정부나 이런 분에게 관심 조차 기울이지 못한 우리 사회가 한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으신 분도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4. 하지만 정작 어리석은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재주가 남다른 사람도 아니고 배경이 특출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어린 시절 내게 따스한 관심을 보여던 선생님이나,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셨던 선배, 방황하던 내게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친구가 없었다면, 과연 오늘의 내가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족한 사람에게 과분한 애정과 사랑을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지 않는가? 어쩌면 나는 기억조차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빛을 지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5. 이렇게 헤아려다 보니, 줄지에 빛이 너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빛이 늘어난 만큼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내가 빛진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오히려 내 삶에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듯합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해 준 사람들이 많음을 반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눅 7:47)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빛을 지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빛 없이 살겠다는 생각이 더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가능한 빛을 많이 지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조금씩 분할해서 빛을 갚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일지 모릅니다.

6. 지난 주 창립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빛을 많이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빛을 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우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빛을 갚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와 수고로 섬겨주시고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리며, 다음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길에 지금까지 함께 걸어갈 소망해 봅니다. 





## 서로 채우는 어설픈 창립예배

김호선



우리 다음 교회가 창립 예배를 보려고 계획한 4월 20일은 부활절이기도해서 그야말로 겹경사의 날이었 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이유로 성도들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았지요. 그나마 서로 위로가 되었던 것은 원래 목사님의 창립예배 계획이 조촐하게 성도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 에 아무것도 취소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강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왔으나 그날은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에 대강당 청소가 중 요했습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애를 써 주셔서 대강당은 반짝반짝 해졌습니다. 거기다 다음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뜻이 있는 꽃꽂이가 놓여 졌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예배 처소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청소 에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강당 앞에 걸린 조각보 그림과 앞드려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우리교회의 나아가야 하는 바를 나타냅니다.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조각보, 앞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모습 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설교에 앞서 찬양이 있었는데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자유롭게 어우러진 찬양과 아주 많이 어슬픈(그뻐 그렸습니다~) 중창단의 찬양을 보고 듣고 있으니 프로들의 잘 짜인 유명한 성가대보다 훨씬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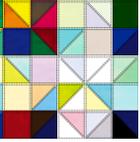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요케 하는지~" 박경연 집사님 간증과 "다음교회와 왜 좋냐고 하면 흥시가 흥시 맛이 나서 흥시" 라고 할 뿐이라고 해 웃음을 터뜨리게 한 정우의 형제의 간증, 한마디라도 더 건네려 애쓰시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모습과 겨울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다음 주일학교와 가까워졌다는 수련학생의 간증으로 솔직하고 꾸밈없는 간증이 주는 은혜로움을 느끼는 시간이었지요, 아직도 수련학생의 "다음 주일 학교 핫탕!!"하는 아무진 모습이 떠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3~8 말씀으로 목사님은 뜻 깊은 창립예배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목은 "부활의 의미"로 부활의 아침에 세워지는 다음교회에게 부활의 의미와 이 땅의 교회로서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강조하셨고 그 사랑에 감사한 시간이 되자고 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다음교인으로 실감이 나는 순간이었으며 그동안의 모든 지난 일들이 꿈이었던 것처럼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날의 기쁨 중 하나는 불교도인 시택 때문에 다락방만 수년을 다니고 주일 예배를 못나온 저의 다락방 순원이 시택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같은 이유로 주일예배 못 나오던 다른 순원까지 데리고 참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음교회의 순장반은 오랜 순장으로 나타해진 저와 순원들의 마음이 다잡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날은 날씨까지 좋아서 많은 성도들이 점심을 먹기엔 혼잡할 수 있는 다음하우스에서 나와 공원과 중등도 벤치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은혜의 예배시간, 맛난 점심, 떡, 기념품까지 그야말로 우리는 부자였지요!

기념사진 시간! 주일학교 모든 식구들, 목사님 가족 등 모든 성도들이 모여 저마다 예배 표정을 짓고 찰칵! 모두 다음교회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찍는 분이 이쪽이 비었다 하면 이쪽을 메우고 저쪽이 비었다고 하면 저쪽을 메웁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이렇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둘러 청소를 합니다. 권사님들과 여 집사님들이 쓸고 남 집사님들이 대걸레로 닦으며 이야기 합니다. 집 청소보다 깨끗이 한다고... 모두 허리 펴고 교회로 주신 강당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속에 남은 상처는 주님께 맡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며 서로 세워가며 씩씩하게 나아갑시다! 다음교회 화이팅!!!





## 다음에 없는 것



1.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소극적인 용어보다는 적극적인 용어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보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드러나길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지 않는 것들도,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데 충분한 적극적인 용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 보았습니다.

2. 다음에는 교회 간판이 없습니다. 얼마 전 다음 영어도서관 간판을 설치할 때,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설치한 간판이 교회를 알리는 간판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한 간판이라는 사실에 남다른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교회 간판을 설치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면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다른 모임 공간 없이 주일에 학교 강당만을 빌려 사용했기에 간판을 설치할 곳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주중모임공간인 다음하우스를 만들었을 때 교회 간판을 세울 수도 있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교회는 결국 사람임을 믿기에 무형의 교회인 사람을 세우는데 온전히 집중하고, 우리의 심령과 삶에 새겨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지게 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3. 사실 우리 교회는 간판만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알리는 홍보수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성도 분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물론 언제까지 간판이나 홍보수단 없이 지낼지 모릅니다. 다만 간판과는 상관없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며 사람이며, 화려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삶에 새겨진 십자가를 통해 다음이 전파되길 바라는 마음은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4. 둘째로, 다음에는 현금 시간이 없습니다. "개척교회인데 현금시간이 있어야, 교회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염려해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는 분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현금시간의 유무와 상관없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램기에 별도의 현금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있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되도록 없애고자 노력했습니다.

5. 예배를 통해 우리는 여러 경험들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감격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은혜를 맛보며 깊은 위로와 위안을 맛보기도 합니다. 다만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이런 경험들은 예배의 산물이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선물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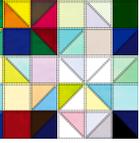
6.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산물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인위적인 요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예배합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예배의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보다 사람의 감정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나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예배가 예배자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준비될 때, 예배는 하나의 종교행사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예배 형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다. 다만 주보 첫 면에 나온 우리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7. 세 번째로 다음에는 주중예배시간이 없습니다. 처음 개척을 했을 때는 주일에만 학교강당을 빌릴 수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주중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주중모임공간인 다음하우스를 마련했을 때, 새벽예배나 수요예배 등 주중예배를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8. 그동안 한국교회는 공적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왔습니다. 물론 공적 예배가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삶으로서 드러지는 예배가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택함 받은 특권만이 강조되는 공적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세상으로 보냄 받은 소명이 간과됨에 따라 믿음과 삶이 이원화되는 현상까지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적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서 드러지는 예배 중심의, 택함 받은 특권이 아니라 보냄 받은 소명 중심의 공동체가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분간 주중예배를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9.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는 대예배와 소그룹이 균형 잡힌 공동체였습니다. 성전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여 예배 드리며, 동시에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기를 힘썼습니다(행 2:46~47).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 혼자, 그리고 소그룹으로 배우며 익히고자 했습니다(행 17:11).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균형을 찾을 때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히 자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균형을 위해 당분간은 주중모임은 예배 보다는 다락방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나중에 주중예배가 생겨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참고】**





## 심심(深深)한 예배

김미경 A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참석했다' 등 예배 참여에 대한 표현은 다양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예배를 바라보는 마음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를 행하기로 재 각성, 재 결심하는 자리이며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의 예배는 심플합니다. 기존 형태에 익숙한 시각에서 보면 심심한 진행으로 보이지만, 이 심심하고 단순하고 굳터더기 없는 예배는 말씀 중심으로 절로 이루어지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깊고 깊이 만나는 심심(深深)한 예배로 내게는 어느 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6일은 다음의 첫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몇 차례의 성찬식은 성도들에게 익숙한 의식이지만 다음의 첫 성찬식은 다음의 식구들에게는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라는 목사님의 축사를 들으니 다음의 성찬식에 이르기까지, 진리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며,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해 온 지난 신앙 여정이 주 마등처럼 스치자 견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는지 여기 저기 흐느끼는 분들이 많으셨고 심지어 목사님은 눈물, 콧물의 홍수로 목소리마저 메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뜻의 진정성을 품고 따르기로 작정한 공동체만 느낄 수 있는 성찬식이었다고 기억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의 성찬식 동안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그

동안 얼마나 먹어 왔던가..?, 먹어 온 빵과 포도주 만큼 내 신앙의 성화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으로 갈 바를 온전히 이루었노라 고백하지만, 같은 성령,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내 신앙 여정의 선한 싸움 흔적을 찾고 찾아야 하는 초라함만 손에 남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찬식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로 초라한 믿음을 크게 증거 삼아 주시는 성령님은,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신앙의 이정표를 세워야함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함과 굳건함이 내게, 그리고 다음교회에 임하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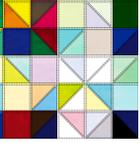
목사님은 매 주 예배 설교 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곤 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품으며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고자 심혈을 기울이다 받은 은혜의 산물이라 그럴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마땅히 들어야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 준비하며 먼저 들으신 것이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음성을 다시 들으시니 절로 눈물이 나는 것이겠지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삶의 품격 향상으로 자족을 위한 구도의 시간이 아니라, 구하고자 하는 바를 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듣고 회개하며 진리를 붙들고자 무뎠음과 결단하는게 예배인 것입니다. 절차와 형식 간소한 다음의 예배, 그래서 초대 교회에 더 가까운 모습일까 자부하며, 초대 교회의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목사님의 눈물 가운데 성도들에게 임하리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게 하여주신다고 확신합니다.

## 다음 첫 성찬예식을 드리고...



- 첫'의 감격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성찬식 첫 집도, 다음의 첫 성찬식' 이 딸 만으로도 감격과 은혜가 남치는 예식이었습니다.
- 천국에서 있을 성찬식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성찬식을 몇 번 할 수 있을지 생각하니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눈물 콧물 흘리는 목사님의 모습에서 진정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수 있는 자격 얻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진정한 성찬예식을 맞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 성찬식을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 하였던 적이 언제였는지 돌아보게 하는 기록하고 은혜로운 성찬식이었습니다. 수침생 팔과 나뉘어진 성찬사(마더 뜻) 깊었습니다.
- 그동안 성찬식을 하면서 두엇을 기념했던 건지... 회개와 회복, 감사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 성찬예식에서 주님 생각하며 고맙고 죄송해서 눈물 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 처음으로 비장한 표정으로 성찬식에 임하는 남편을 보며 마음을 먼저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성찬예식을 하면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 없어진 잠깐의 스킨에 영혼을 두지 않고 참 소망을 붙들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 다음 교회가 첫 성찬예식을 주께 드림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 마른 떡과 잔이 진정 예수님의 삶과 피가 되어 먹고 마시자! 다음에서의 첫 성찬예식은 제언에 진정 주님이 기쁨을 새롭게 느끼게 된 기록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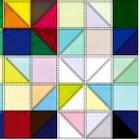
THE  
patchwork  
of GOD 2<sup>nd</sup>



# 대강당,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1. 지난 주일에 "큰 비의 소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감사하게도 주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도응답을 주셨습니다. 대강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허락을 해 준 것입니다.
2. 처음 중등고등학교 소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감격과 감사가 컸습니다. 개척을 위한 기도모임을 시작하고 6주간 기도모임을 하며 장소를 위해 기도했는데, 구를 한 조각 없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형편이었습니다. 기도모임 장소로 사용하던 곳도 더 이상 사용이 어려워졌기에,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주에 중등고등학교 소강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어 개척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3. 막상 소강당을 사용하여 예배를 드렸지만, 주일학교를 위한 공간은 물론이고 주중 모임 공간을 위한 다양한 필요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이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하지만 우리에게 꼭 맞는 장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대한 확신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4. 사실 대강당 사용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교회회에서 학교측에 대강당과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고, 학교측에서 우리에게 의사를 물어 왔습니다. 한 학교에서 두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에, 학교 측에 대강당을 사용하겠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하며 무엇인가를 준비하신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5. 그런데 제안 후에 학교 측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성도 수는 점점 늘어나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간만으로 예배드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소강당 부족실과 다음하우스 1호 지하를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주에는 너무 덥고 비좁아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어른들이야 참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 아이들의 위한 안정적인 예배공간을 마련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대강당을 사용해도 된다는 연락이 왔고, 주일학교 예배공간도 함께 해결이 되었습니다.
6. 특히 이번에 대강당 사용을 허락한 것에는 성도 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 덕분이었습니다. 몇 주 전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학교가 매우 지저분했습니다. 토요일 행사 후 정리를 안 하고 가는 바람에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른 아침에 오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말없이 학교 곳곳을 다 정리하고 치우는 모습을 학교관계자들이 보고 우리교회에 신뢰를 갖게 되어 대강당을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7.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기대와 바램과는 전혀 다른 시기에,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특히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을 통해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오직 하나님 당신 뿐이라는 고백을 하길 원하시며,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우리 공동체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 손길을 배울 수 있음에 가장 감사하며, 그 손길에 우리 공동체의 앞길을 전적으로 맡기고자 합니다. **11**





## 조각보 한조각

강경화

2013년 12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우리 부부는 중동고로 향했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친분이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중동고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호기심과 궁금함에 한 번 둘러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강당 출입구로 들어가면서 다소 낯설고 서먹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하게 웃으며 맞아 주시는 안내 집사님 덕분에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안내를 받아 강당으로 들어선 순간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음교회의 로고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형상과 그 밑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라

는 문구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렸습니다. 로고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가슴이 먹먹하고 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보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동으로 차올랐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거저 받은 은혜와,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사면하신 공훈과, 지금까지 받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벅찬 감동에 눈물로 찬양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감동은 말씀으로 이어졌고, 말씀에 목말랐던 나에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황무한 내 마음에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벅찬 감동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에서의 나의 첫 예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우리 부부는 마법에 걸린 것처럼 어김없이 주일 오전 11시에 중동고로 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는 어릴 적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나게 했고, 그때의 감동과 기쁨이 되살아 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2월, 1월이 지나면서 우리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주일을 기다리며 행복해 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인 등록을 바로 받지 않은 것은 목사님의 참으로 깊은 배려였습니다. 주일날 기준에 다니던 (도곡동 소재)

교회와 다음교회에서 각각 7시, 11시에 두 번 예배드리는 우리 부부에게 교회를 당장 선택하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인 등록을 받았더라면 그 부담감이 매우 컸을 것이다. 우리 부부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로 인하여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좌절감과 그와 비슷한 문제들로 인해 힘들고 지쳐있었던 터라, 교회를 결정하는 데 많은 기도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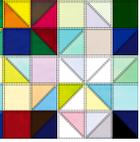
4월 20일 부활절, 다음교회는 창립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다음의 식구들은 몸을 아끼지 않고 준비하였습니다. 찬양으로, 악기로, 안내로, 청소로,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들에서... 여러 손길들이 모였고,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정성껏 준비하는 다음의 식구들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먼지를 마시며, 힘을 다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음의 식구들이었습니다. 아낌없는 봉사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적절히 필요한 곳에서 지원하며 봉사하는 다음의 식구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져 그 분들과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전 어느새 그 분들과 함께 다음의 식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와 노력과 헌신으로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 날은 감동과 감격이 한꺼번에 밀려 온 잊을 수 없는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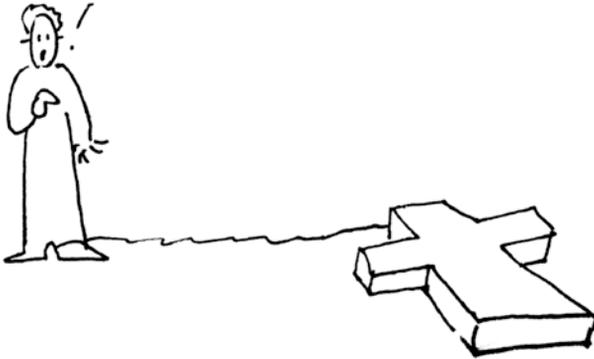
님께서 그렇게 다음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다음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나는 그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할 작은 조각보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 온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살아갈 은혜를 꿈꾸며, 다음 교회에서 나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 평안의 십자가

세레간증 / 이승언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닌 게 어느덧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가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저는 "믿는다"는 답 대신 "교회는 다닙니다"라고 소극적으로 대답하곤 했습니다.

중학교가 미션스쿨이어서 성경과 찬송가를 그때 처음 접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친구 따라 교회를 갔다가 첫날부터 전도하라고 길거리에 내보내는 것이 쑥스러워 발길을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교회를 막연히 불신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렇지라는 비판의 칼날만을 세웠습니다. '무엇을 믿든 바르게만 살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혼자만으로는 무척 힘들기 때문에 신앙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춘기이후 부정할 적이 없었지만, 믿음보다는 지식으로 종교를 이해하는데 치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교회를 처음 가려는 아내를 따라 일단 교회를 한 번 가

보자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정신없이 바쁜 직장 생활을 하던 나이 40살쯤 즈음이었습니다. 우연히 옥한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확 와 닿는 무언가에 끌려 그렇게 일산에서 서초동까지 왕복 80km의 일요일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교회는 우선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누가 잡지도

않고 예배만 보고 돌아가도 되니 편인한 마음에 세례도 받지 않고 14년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마 세례를 받으라고 했다면 일찍 그만두었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옥 목사님의 설교는 열정과 힘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 보다는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하는가"에 대해 말씀하셨고 설교를 '그게 그 소리'라고 냉소하던 신앙의 아웃사이더인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일원동으로 옮겨 다니게 되고, 저는 몇 주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노출되지 않고 다니던 교회 그리고 가끔 예배를 보지 않고 교보문고에서 책을 보던 익명의 자유로움이 사라지게 된 것을 심히 우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궁금하던 차, 드디어 다음 교회를 나오게 되고 안내 봉사를 하는 아내 곁에서 할 일 없이 애매모호하게 서있는 것은 참으로 불편하고 어색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그럴 바에야 뭐가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덜 민망한



〈 세례, 입교 간증문중에서 〉

- 저는 무심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지금과 생각하니 하나님 아버지는 그 단 한순간도 저를 잊으신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 제 마음대로 살았던 저를 끝까지 사랑으로 이고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의 제 삶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가족들에게 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 무엇보다도 채워지지 않던 제 마음의 갈증이 주님을 만나 비로소 해결됨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다른 곳에서 해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 제 감정에만 호소하던 내마음대로의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배워감으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세워가며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친구들의 교회나 친구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교회, 나의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싶습니다.

것 같아 딱히 정해진 역할도 없지만 집사님들이 바쁘게 봉사할 때 의자를 접으며 대충대충 뭐가 하는 척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차봉사를 하시는 집사님의 은근한 압박적 권유로 중동고등학교 지하주차장의 주차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고 누구에게도 먼저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상태는 '교회 가지 않는 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는 자를 좀 더 안쓰럽게 보는 입장으로 변해있습니다. 신앙의 힘과 교회를 다니는 기쁨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떳떳한 신자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닳고 싶은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나는 '그 분이 신앙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훌륭한 사람은 아니나 훌륭한 사람 적어도 합리적인 사람의 많은 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될 런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불현 듯 때가 온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냥 아기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다스려 주는 힘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큰 위기 없이 큰 탈 없이 순조롭게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나의 능력 밖의 일인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제대로 믿지도 않는 나를 이렇게 까지 돌보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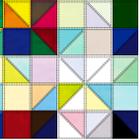
나는 오늘, 14년 동안 미뤄온 세례를 받습니다. 지난 여름 다음 교회에서 약속된 첫 세례식을 몸의 이상으로 넘겨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너의 교만을 좀 더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에게 뜻깊은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나를 내어 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문 앞에 데려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문을 제가 열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저에게 큰 부담입니다. 지금까지 그 부담을 무서워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배운 찬송가 가사 2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시다" 라는 찬송가입니다. 교회에 나오니 우선 '명안하구나' 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회에 나오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라는 찬송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부담을 제대로 져야 하는 문을 어렵게 열었습니다. 저는 십자가 짐 같은 그 고생이 사실 두렵습니다. 과연 나에게 십자가 짐을 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러한 힘이 있는지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갈증

세레간증 / 한동훈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엄마 아빠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말을 늘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는 앞으로 서울대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앞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사람이 되리라고 당연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문득 '그 미래는 과연 진짜일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에 가게 되면 나는 행복할까?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일까? 아니라면 무엇이 진짜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수준의 머리로는 이런 심각한 질문에 답을 얻기는 커녕 골치 아픈 그런 생각은 더 이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고등 학교 사춘기를 거치면서 공부 잘하는 것이 내 행복을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은 흔들렸고 반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고3때에 운 좋게 기대이상의 수능 점수를 받고 제 실력보다 좋은 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간사한지라 욕심이 나서 재수를 하였지만 지난해처럼 또 시험 운이 좋기를 바라며 더 마음 놓고 놀았습니다. 학원비와 책값은 대부분 유흥비로 쓰며 노는 재미에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몰랐

던 세상에서 신나는 시간들이었고, 그것이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듯 했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질문의 답을 찾은 듯 했습니다.

이렇게 놀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내가 진정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길이고 나는 앞으로 이것을 얻기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올 때면 깊은 허무감 또한 같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밤의 즐거움들은 거짓이었고 허상일 뿐 그것은 저의 욕구를 잠시 충족시켜주었지만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불을 쫓는 나방처럼 계속해서 밤이면 나가 즐겼고 아침마다 허무함에 시달리는 생활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여 '나는 무능력하며 구제불능'이라 여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나가기도 했지만 수박 겉핥기식의 제 신앙생활은 내 삶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이어나가는 중에 학생시절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연히 드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었고 뭐라도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매일 연습하며 나름의 최선을 다했고 처음으로 무엇이 빠져 열심히 해보는 것이라 충실한 생활에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인 욕구 충족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사는 것이라고 느꼈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다짐과 답을 찾은 것 같은 기쁨에 희망을 가지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내게 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열심히 인한 성취감은 오랜 시간 기쁨을 주었으나, 그 뒤 더 큰 성취만을 오로지 좇으며 사는 게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취의 여부에 따라 저는 죽기도 살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성취의 노예가 되었으며 그 길은 제게 절망과 스스로의 무능을 향한 멸시와 증오밖에 주지 못하였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어찌지 하는 두려움에 가득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별 수 없이 사는 중에 같이 음악하는 크리스찬 친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다지 치열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았고 실력도 빼어나지 않았지만, 저와는 다르게 기쁘게 웃을 줄 알고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와 다른 모습이 이상하게 여겨져 '교회에 무엇이 있나?' 하고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진짜인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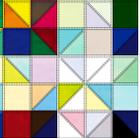
혼자 설교를 듣고 그것을 실천하며 그것이 실제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보내고 변

화된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라는 중에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마침 청년부에 연락이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반신반의 하며 어렵게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주님은 거기서 저를 깊게 만나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몇 시간을 울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동안 계속 되어온 제 삶의 갈증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잠깐 만족을 즐겼던 세상의 것들과 달리 주님께서 주신 것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제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제가 그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답을 찾았고 더 이상 세상가운데 헤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던 그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제가 가야할 길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임을 압니다.

여전히 죄인 된 모습에 절망할 때도 있으나 자기 아들을 내주시는 이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저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된 길임을 믿는 믿음으로 또 앞으로 주어질 은혜로 남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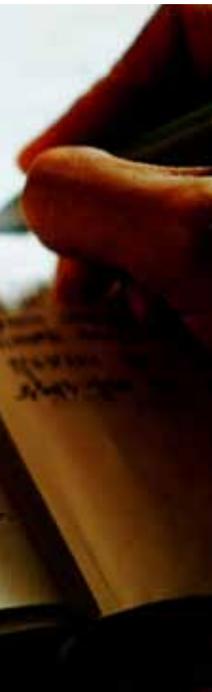


## 다시 설교노트를 꺼내며

김정희

올해 저는 65세입니다.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저의 신앙 생활도 65년이 된 셈입니다. 65년의 신앙생활이라면 이제 좀 성숙할 때도 되었건만 아직도 미성숙한 저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이제 머지않아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얼굴이나 들 수 있을지 은근히 겁이 나기도 합니다.저의 부모님은 고향이 평안도이시기에 일찍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공산당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다.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경험했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하나님은 늘 제 곁에 계시고 저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저의 주일학교 시절은 참 즐거운 추억거리가 많습니다. 어린이 성가대, 군부대나 형무소등 위문공연, 무용, 연극, 동화대회, 성경암송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여러 가지 일로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결혼하고도 주일마다 부모님 만나는 즐거움으



로 먼 거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때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전부였고 설교시간은 거의 잠자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0년 1월에 옥한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옥한흠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던 날 저는 찬송을 부르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고 옥목사님의 설교말씀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그 주부터 옥목사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성경 공부에 찾아갔는데 그제 바로 제자훈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정해놓은 교재도 없이 목사님께서 이 책, 저 책으로 또는 성경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았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말씀이 이렇게 재미있다니! 성경말씀이 꿀종이처럼 달았습니다. 밤 12시, 1시까지 성경을 읽는 저를 보고 남편은 신학대학 간다고는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매주 마다 교인이 늘어났고 그해 11월에 목사님은 저에게 순장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31살의 어린 나이에, 순장이 뭔지도 잘 모르는 채 저는 순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순장들은 순원들 심방도 자주 가야했고 순원이 전화하면 언제든 달려 가야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순원 집에서는 며칠 동안 매일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남편이 출장 갔다고 무섭다고 하면 한밤중이라도 가서 같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서

투르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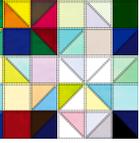
교회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니 친정 아버지는 제가 이단에 빠진거라고 하시면서 곧 신문에 "옥한흠과 그의 여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나서 집안 망신을 시킬거라고 걱정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장로이신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신거 보면 제가 참 많이 변했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녔고 또 하나님은 늘 저의 곁에 계시다는 것은 믿었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저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저의 입술에선 감사가 나왔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졌고 예배 시간마다 감격으로 울었고 설교 말씀을 적은 노트들이 늘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저의 모습이 안타까워 하나님께서는 제가 옥한흠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를 깨워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살면서도 저는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빛난 자로 어린이들과도 주재원 부인들과도 성경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나의 생명의 원천이었던 교회에서 저는 더 이상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후 나는 앉아서도 울고 자다가도 울며 우울에 빠져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교회에서 다시 예배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는 기쁨을 다시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쓰지 못했던 설교 노트를 다시 꺼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듣고 또 열심히 노트에 적고 있습니다.

다음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는 분들을 보며 그들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부디 다음교회에서 행복한 믿음생활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 "목사님이세요?"

김준영



준비기도회로 다음교회 예배의 시작부터 찬양 드린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진짜 시간 빨리 가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엄청납니다. 처음부터 단 위에 있다보니 교역자로 생각하신 분들이 예상외로 많아서 "목사님이세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젠 이런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저분이 목사님이시지요^^ 저는 그냥 평신도입니다."라고 대답하며 담임목사님께 안내해드립니다. 단 위에서 찬양을 하다 보니 교역자 포스가 난다고들 하시지만 평신도 찬양사

역자가 더 좋습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 다음교회의 특징(?)은 평신도, 교역자 뭐 이런 신분 개념의 단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은 평신도가 너무나 깨어있는 교회입니다.^^교역자로든 평신도로든 상관없이 그냥 마냥 다음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분들과 같이 찬양할 수 있어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매주 들려지는 겨우 4~5곡의 예배찬양을 준비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간섭하심만을 구합니다.

교회에서 문득문득 놀라는 것은 "준비찬양?" 이라고 지칭하시거나 "시간이 좀 남는데 찬양이나 하시죠?" 라는 대화를 주고받을 때입니다. 뭘 준비하는 찬양일까요? 예배를 준비(?)하나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모이기용 찬양을 원하시는건지... 쩌. 뭐 그리 딱 맞는 단어를 찾기 어려워서서 그러실꺼라 여기고 요즘은 패스합니다만 예배전찬양이라는 말도 찬양의 뜻에 맞지 않아서 저는 "예배찬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찬양, 예배, 경배 ... 구분하기 좀 애매한 단어들이죠? 분명 다르지만 같은 대상 즉 하나님께 드리는 피조물인 인간들의 당연한 의무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걸 왜 하라고 하신걸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롭게라도 만나고 싶으신가봅니다. 뭐라도 정해놓지 않으면 만날 기회조차 없게 하는게 우리 인간들인지라 말이지요. 설이나 추석이라도 있으니 고향에 가서 부모님 만나고 오고 생신이라도 되어 전화를 드리는 것처럼요. 내리사랑은 하나님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찬양은 뭘까요? 노래 부르기? 악기들과 함께 멋지게 마이크 잡고 다같이 노래 부르기?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등의 관련 단어들 중 "할랄"(halal)이 바로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칭

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백성으로서 왕의 왕을, 종으로서 주님을 그리고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멋져요!!" 이거죠!!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기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찬양 속에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찬양하는 우리를 좋아하시니까요.

찬양곡? 찬송가? 복음성가? OCM? 우리가 부르는 노래인데 교회만 가면 노래라고 안하고 찬양이라고 하는데 다양하게 부릅니

다. 어떠한 곡이던지 간에 어떤 장르던지 간에 영의 눈을 크게 뜨시고 구분하고 판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한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작사곡을 하던 부르던 간에 하나님께 드러질 수 있는 곡인지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즘 가장 Hot한 저의 숙제입니다. 먼저 가사를 보셔야합니다. 그러면 곡의 내용상 구분이 나뉘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찬양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라는 것입니다. 가사가 너무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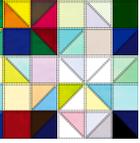
이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누구를 위해 좋은 것인지를 구분해야죠. 찬양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요즘 들어 곡은 참 좋은데 가사도 참 좋은데 그 작사곡자의 신앙관이 불순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젠 곡의 가사뿐만 아니라 지은사람도 누군지 알아야하는 시대가 되었답니다.

옥석에서 또 옥석을 가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을 주시는거죠. 찬양에 대한 짧은 제 지식과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감사하며, 매주 하나님 앞에 떨리는 심정으로 단위에 올라감을 나누는 것이 좋으듯하여 짧은 글을 올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을 기다리시며 기뻐하십니다.





## "다음중창단"으로 오세요

이승준

저는 성악은커녕, 학교 때 음악성적도 별로였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합창단에 참여하면서 지금은 합창단과 중창단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지난 2월에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나중에 성가대도 조직해요~"라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음교회 중창단모집 연락처로 후보에 실리게 되었고, 지금까지 중창단의 이런저런 연락을 담당하고 있어요.

지난번 창립예배를 앞두고는 중창단 지원자가 달랑 한 커플 밖에 안 되어 은근히 걱정도 했었는데, 마침 성경연구반에서 특송을 하셨던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다음 중창단"이란 이름으로 창립예배 특송을 하기도 했었지요. 그 후, 주일학교 등 다른 사역과 겹친 분들이 중창단을 계속 섬기지 못하게 되어 단원 구성이 은근 염려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들을 보내 주셔서, 이제 제법 인원이 갖춰지고 있어요.

특히, 성악가이면서 성가대 지휘 경험도 많은 집사님이 중창단에 합류 하시면서, 기본적인 발성법과, 음정 박자 요령 등 세심한 지도를 해주시는 덕분에, 개인적인 실력들도 좀 향상되는 것 같고, 멋진 지휘로 인해 화음이 더욱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다할 조직도 갖춰지지 않았고, 정식 창단을 했다고도 할 수 없지만, 15명 정도의 단원이 거의 매주 모여 연습하고, 매월 한번씩 특송을 하고 있습니다. 중창단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원들 한분 한분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셔서 기쁨으로 다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 ♥ 다음중창단에서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

- 찬양은 잘 못하지만 즐겁게 감사와 은혜로 함은 오직 하나님 은혜라!
- 프르가 아니어도, 나이가 많아도, 은혜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 복이요, 기쁨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전분기의 지도까지 받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음에, 함께 할 수 있음에, 더 큰 은혜가 내게 임함에, 감사드립니다.
- 음악적 은사가 부족한 저는 매 찬양 때마다 개인 연습시간이 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중창단을 하게 하심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한 저에게 연습시간 만큼이라도 하나님과 친해질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 중창단을 통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 집에서도 찬양연습을 하니 4살, 7살 아이들도 따라하게 되어 온 가족이 다음중창단이 되어 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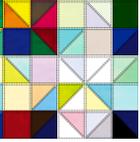


음악의 향기



노래에 재능이 없어도, 성가대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찬양대가 다음 중창단입니다. 부족하고 어설픈 다음 중창단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나온 찬양소리보다도 백배는 더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있는 다음 중창단의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더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어설픈 조각보인 "다음 중창단"이 주안에서 건강히 자라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크고 멋진 조각보가 되어 "다음 성가대"로 서는 날을 꿈꾸어 봅니다. 다음 성도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다음 중창단으로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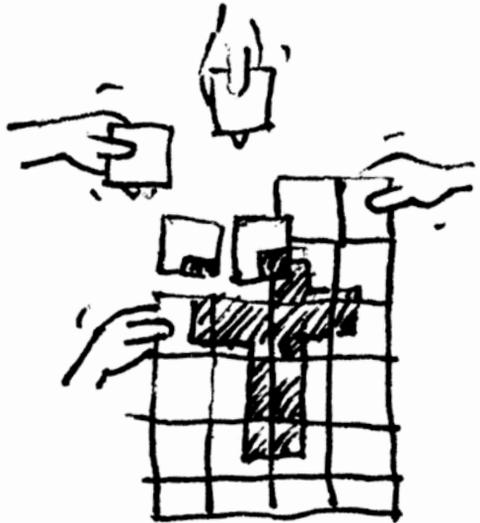
# 개척, 예배, 그리고 1년

1. 오늘은 첫 개척예배를 드린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길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개척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고, 걸어온 길 보다는 걸어갈 길들이 훨씬 많이 남았기에,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이 조금은 사치스러운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 지난 1년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있다면, 우리가 표어로 삼고 있는 “살아온 은혜” 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작년 이맘 때 교회 개척을 위한 기도모임을 할 때만해도 모든 것이 희미하고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개척멤버도 없었고, 예배처소도 결정되지 않았고, 교회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현실교회의 모습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와 같은 공동체를 세우자는 마음에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뎌야만 했습니다.

3.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래가 너무나 희미해 보일 때가 있고 마음 속에 불안이 가득한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한 정확한 시간표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단 한 순간도 부족함이 이곳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누군가 어떻게 개척을 하면 되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특별히 답할 것이 없음을 자주 느낍니다.

4. 사실 개척을 하고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저의 부족함입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준비가 덜 된 사람인지 깨닫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저의 부족함이 오히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가진 것과 상관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리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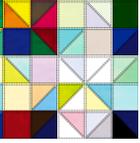


5.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른 그리스도인이란, 바른 교회란 무엇인지 고민하고 힘들지만 실천하고자 노력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수고하시는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세워주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교회를 위해서 멀리서나마 기도하고 후원하는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있었고, 덕분에 우리가 꿈꾸는 조각보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져 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 예배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지난 1년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피난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이 걸여갈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세워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이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피난처와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_ 시편 46:1, 11





# " Hello, Coffee Please "

1. 프랑스의 휴양도시 니스의 한 카페에 가면 이런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Coffee 7유로, Coffee Please 4.25 유로, Hello Coffee Please 1.4 유로" 처음에는 손님들이 커피의 종류가 달라 이름을 다르게 붙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커피인데 어떻게 주문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카페 주인이 종업원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친절한 말로 주문을 하면 1/5 가격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 한 마디로 커피 값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는 "효율성"입니다. 같은 비용으로도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리는냐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얼마나 많은 성과 보다는 어떤 가치를 창출하느냐가 더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흔히 카페는 커피를 만들어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니스에 있는 이 카페는 친절이라는 문화를 만들어 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뉴판 덕분에 관광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카페의 메뉴판을 주목했던 이유는 이 카페가 만들어 내고자 했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3.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재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대두되는 주제는 재정투명성입니다. 교회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재정투명성이 자리잡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4. 개척초기부터 나름 세운 원칙이 있다면, 교회의 존재이유에 걸맞게 교회의 재정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며,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을 이 세가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균형 있게 사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1천 만원 이상을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고, 1/3씩 균형을 맞게 교회 재정을 지출했습니다.

5. 앞으로도 이 원칙을 얼마나 지켜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노력을 통해 교회가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가치를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효율성을 넘어 가치를 창조할 줄 아는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역별 지출내역(기간: 2013년 12월~2014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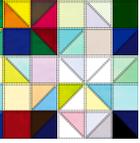
	지출총액	전체비율	주요항목
예배하는 공동체	139,508,888	36%	강당대여료, 목회자사례비, 주보인쇄비, 악기 및 음향기기, 창립예배 행사비 등
증거하는 공동체	122,289,340	31%	다음영어도서관, 장학사업, 컴패션(필리핀)후원, 탈북청소년학교 등
훈련하는 공동체	129,748,768	33%	주일학교, 대학청년부, 다음성경연구반, 주일식사교제비, 다음하우스 2호 운영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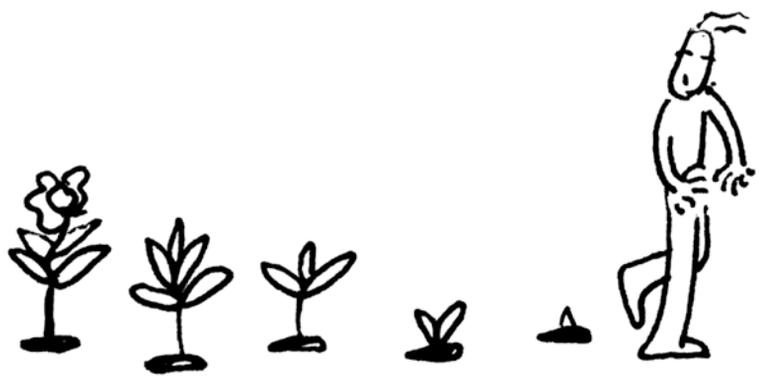




문은 문명의 문  
문은 문명의 문  
문은 문명의 문



THE  
patchwork  
of GOD 2<sup>nd</sup>



# 1 호자의 은혜

1. 처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동료 목회자 한 명이 "1호 점은 늘 은혜가 있잖아요,"라고 말하며 격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래, 무엇이든지 1호 점에는 독특한 은혜가 있지."라는 생각에 스스로 위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척을 하고 분주한 일상을 보내다 보니, 1호 점의 은혜에 대해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척 후 매 순간, 매 사역마다 "처음의 은혜, 1호 점의 은혜"가 넘쳤음을 느끼게 됩니다.

2. 첫 1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여자다락방 모임을 하는 날, 교회에 나오지 않던 자매를 전도하여 자신의 아픔을 알고 위로해줄 수 있는 다락방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첫 모임공간인 다움하우스를 소개해주신 공인중개사 실장님이 10여 년 동안 교회를 정하지 않고 방황하다가 우리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첫 성경연구반에서 그 동안 여러 여건상 어느 교회도 등록하지 못했던 자매가 성경연구반을 계기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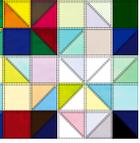
3.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처음의 은혜, 1호 점의 은혜가 있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매번 우리교회가 세운 가치 대로 한 사람, 한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사역을 기뻐 받으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처음의 은혜가 멈추면 어쩌나라는 염려가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 공동체의 갈 길도 처음의 은혜가 또한 변함없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늘 처음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4. 사실 개척을 위한 첫 기도모임을 할 때만해도 너무 막막했습니다. 개척멤버도 없고, 모임장소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이렇게 계획 없이 시작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첫발을 내디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이 없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좇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 것 같습니다.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여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은 줄어들었지만 우리를 자신의 손안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5. 그리고 무엇보다 개척하지 않았으면 결코 만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땅의 교회의 현실에 마음 아파하며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길 꿈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무 준비도, 아무 계획도, 아무 여건도 없었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임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 물론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고 희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4개월간 배운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확신과,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을 잊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며 멀지만 힘내어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처럼 매순간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한사람에 대한 꿈을 꾸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아침입니다. 





THE  
patchwork  
of GOD 2<sup>nd</sup>



# 조각보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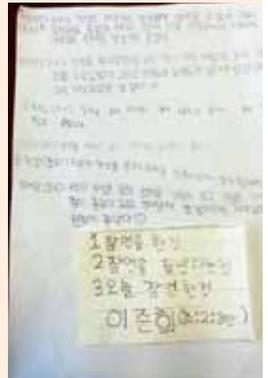


## 아기오리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서초3 다락방 순장 정수호

저희 서초3다락방의 자랑꺼리는 성경읽기를 하는 자녀들이 있는 다락방입니다. 초등학교 또래를 가진 저희 순원들은 '자녀를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를 고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순원이 가정을 오픈해 주셔서 자녀들이 매주 모여 잠언 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성경공부를 좋아해줄까?' '성경읽기를 지루해하면 어쩌나...'등등의 걱정이 많았지만 신기하게도 잠언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이 모임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시험전날에도, 비가와도 빠지지 않고 모이는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 '자신을 반성 할 수 있었다.' '이런 모임이 퍼져서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을 때 저희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초3다락방 이 믿음과 행함의 본이 되어 자녀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엄마오리 뒤를 따라 오는 아기 오리 처럼 믿음 안에서 잘 따라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 "많다"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다음2 다락방 순장 윤재임

우리 다락방은 원거리에 있는 순원들이 다음하우스에서 **금요일 10,30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다락방의 특징은 "많다"는 것입니다. 다락방 인원이 8명으로 식구가 많고,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으로 나이가 많고, 청소 급식 봉사 등 섬김이 많고, 순장하던 분이 많고, 다음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고, 열정이 많고, 음치가 많고?!하지만 열정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음치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특송을 위하여 매주 모여 2시간 이상 찬양 연습을 하였습니다. 음치들이 모인 다락방인가라 망설였지만 이웃 다락방 순원의 지원을 받아 용기를 내어 시작 하게 되었는데 연습 도중 자신들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은혜로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연습을 거듭하면서 숨어 있던 실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 "하니, 되네" 하며 기뻐하는 모습은 어린아이들 같습니다. 다음2 다락방이 앞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다락방 되길 원합니다.

## 묵은지로 새순 내는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다음3다락방 순장 이진미



저희는 매주 목요일 오전 송천홀에서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저희 순원들은 신앙의 묵은지들입니다. 연애하면서 제 발로? 나란히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현미집사님, 시어머님한테 끌려 신혼여행 다녀온 첫날부터 얼떨결에 교회출입? 시작한 영인 집사님, 오직 예수 잘 믿는 신앙 찾아 3만리로 신앙의 뿌리가 깊은 경화집사님과 성경책을 학교 사물함에 넣어두고 가족 몰래 주일 성수를 하며 야성의 신앙을 키워온 경화집사님 그리고 열심당원 이모 손에 끌려 어린시절 교회 마루 바닥에 앉아 졸다 넘어지길 여러 번한 순장인 저를 포함하여 저희 다락방 신앙나이를 다 합치면 아마 150살은 넘을 듯합니다. 지난 1년 다락방에서 예배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각자의 신앙에 대해 참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바울의 "찬송하리로다" 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는 소망이 저희 다락방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저희 순원들은 예배의 은혜와 섬김의 기쁨을 그 누구보다도 풍성히 누리며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3다락방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설레임으로 묵은지 신앙에 건강한 새순을 틔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 신데렐라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서초4 다락방 순장 송길은



저희 다락방은 엄마로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결혼 10년차 즈음의 순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살 꼬마로부터 초동 1, 2학년인 아이들을 둔 엄마들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지요, 작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자마자 다락방으로 달려와서 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12시경에는 마치 우리 구두를 신은 신데렐라가 된듯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점심을 제대로 차려놓고 먹지도 못하고, 삶을 속 시원히 나누지도 못하고, 때로는 공과 문제를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결석하는 적도 없고, 한 사람도 짜증내는 적도 없습니다. 코흘리개 첫아이를 처음 보내고 나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요? 그러면서 저희는 '우리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시겠구나...'를 깨달으며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려 애쓰며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긴장과 생동감 넘치는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남초5 다락방 순장 박영일



저희는 서초,강남지역에서 모이는 다음교회 남자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직장생활에서 가장 바쁘다는 40~50대 남자 집사 6명이 목요일 저녁 8시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반포동에 사무실이 있는 김태영 집사님부터 안산에 회사가 있는 김희진 집사님까지 원근 각처에서 다락방을 향해 바쁜 발걸음을 옮깁니다. 민상범 집사님이 기타로 인도하는 찬양시간을 마치고 나면 에베소서 말씀공부가 시작됩니다.

여김없이 이어지는 정우의 성도님의 호기심 많은 질문은 다락방에 긴장과 생동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주일학교 교사인 정성철 집사님의 간증은 항상 은혜스럽습니다.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와 기도제목물 나누다보면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우리 다락방을 통해 받은 은혜는 나의 삶을 지켜주며,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기대합니다~



## 블랙홀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서초2 다락방 순장 조성희

블랙홀 다락방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저희 다락방 수원인 임현지집사님께서 붙여주신 다락방 애칭입니다. 한번 저희 다락방의 매력에 빠지면 헤어 나오질 못하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무슨 매력이나구요? 저희 다락방은 순수함과 소녀적 감성을 가지신 다락방 분위기 메이커 정도연집사님과 언니 같은 푸근함과 넉넉함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임현지집사님, 언니 집사님들을 섬기느라 늘 애쓰시는 솜씨 좋고 예쁜 우리 막내 이시원집사님 너무나 예쁜 미음과 얼굴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서로의 신뢰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하심탄화하게 풀어놓으며 위로와 답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말씀과 교제의 행복한 블랙홀에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 보면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뭐? 아직도 다락방이라고?"하는 질투 어린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다락방 시간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 무엇이트 말씀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하며 다음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다음의 가족이 되길 저희 다락방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의 신부된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강남2 다락방 순장 김미경A

저희 다락방은 일단 높습니다. 객관적으로는 평균 키가 높고, 주관적으로는 미모의 수준이 높고(?) 내적으로는 주님을 닮아 가고자 하는 기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 다락방은 낮습니다. 만언니 정유진 집사님은 헌신적인 내조를 최윤정 집사님과 안정원 집사님은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박민아 집사님은 다음 하우스 2호에서 성도를 겸허하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강하여 진리를 사수하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투력이 강한 다락방입니다. 거짓과 불의에 대한 분노가 강한 만큼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더욱 감동이 넘쳐, 정결한 신부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목상, 하나님의 향기, 변화되는 인격, 이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님됨을 실천하는 선배 순원들을 보며 지난 학기 초부터 오시는 초신자 순원도 빠르게 은혜를 받음으로, 준비된 리더들인 순원 집사님들에게 또 다른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남 2다락방이 신앙적 총명함으로 늘 기도에 힘쓰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 다촛점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남자4 다락방 순장 정연양



저희 다음 남자 4다락방은 믿음과 행함이 균형 잡힌 순원들과, 나이를 제외한 여러 면에서 제일 부족한 순장,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솔선수범의 아이콘 박경제 집사님, 논리적이며

솔직한 간증으로 때마다 감동을 주는 지대현 집사님, 늘 깊이 있게 다락방 교재를 준비하는 성실, 신실하신 정기용 집사님, 한눈에 크리스천임을 알게 하는 리얼 순수 윤준택 집사님, 지난주부터 새로 합류하여 신선함을 더하는 김영운 집사님... 저희 순원들은 나와 가족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신앙을 넘어 이웃과 사회,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며, 멀리는 위엣 것을 소망하는 multifocus 다촛점 다락방으로 서로에게 건강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는 다락방은 진주가 감추어져 있는 발을 산 농부처럼 매번 설레임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다음교회와 다락방을 통해 말씀 안에서 함께 성숙해가며, 주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락방 되기를 기도합니다.

## 필사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강남3 다락방 순장 김명희



언니 동생들, 동생이 그 아래 동생을 돌보는 다음주일 학교의 아름다운 전통처럼 저희 다락방은 언니 순원들이 동생 순원들에게 신앙과 삶에서 멘토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큰언니 손민정 집사님은 소녀같은 감성을 지닌 분으로 보육원 봉사와 다방면 재능으로 생활의 본이 되는 분이고, 배움의 열정이 많은 작은 언니 손효정 집사님의 도전정신은 다락방에 생기를 더합니다. 노트를 선물하며 예배소서 필사를 제안하셔서 저희 다락방은 필사적으로 말씀을 필사하는 다락방이 되었습니다. 예배소서 필사가 더해져 다락방의 은혜가 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섬김이 몸에 배어 있는 강정은 집사님은 나이 어린? 순장을 늘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막내 홍민정자매님은 다락방에 참석하면서 가족이 함께 다음주일에 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락방이 영혼의 쉼과 삶의 위로가 있는 세상과 구별된 작은 천국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속전속결다락방을 소개합니다

여직장 다음1 다락방 순장 김진애

저희 다락방은 원근각지에서 하나님의 원심력이 작동해서 목요일 저녁이면 다음 하우스 2호로 끌려드는 다락방입니다. 자영업, 연구원, 사서, 의사, 방송국 PD 등 각각각색의 직업으로 세상을 섬기고 가정까지 챙겨야 해서 늘 과부하 상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처음 만나도 낯설어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 민낯의 다락방이라서 기도로 서로의 짐을 지고, 기도 응답에 같이 환호하는 가족입니다. 하나 되어 기도해서 그런지 결단하면 실행도 속전속결, 기도 응답도 속전속결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사, 중창단, 청소 뒷마무리, 점심 식사 봉사, 도서관 정비 도우미 등 자신의 달란트로 섬길 수 있음에 깊이 감사할 줄 알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서로가 황재했다고 기뻐합니다.



## 365일 영적 긴장을 놓지 않는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다음1 다락방 순장 양선주

제가 자랑하고 사랑하는 다음1다락방은 저의 오랜 순장 섬김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신 보너스인듯합니다. 순장보다 더 열심히 꺾대를 향하여 달리는 성숙한 믿음의 순원들로 구성된 저희 다락방은 다락방 모임이 주는 유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방학 때도 5번이나 따로 모여 성경읽기를 하면서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순원들은 늘 예배와 기도로 성실히 다락방 말씀 공부를 준비해옵니다. 다락방에서 솔직한 삶의 나눔이 이루어지고 말씀에 비추어 부족한 부분이 바로 잡아지는 고백들로 인해 서로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보여 주는 다락방!' '살아온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갈 은혜에 대한 기대로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다락방!'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 조화로운 삶의 현장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다움4 다락방 순장 박경연



저희 다락방은 독특한 사랑의 모임입니다. 장애아를 키우는 순원들이 모여 시작한 다락방이 지금은 통합 다락방으로, 매주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간혹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이 비장애 엄마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다락방은 서로에게 향한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조화로운 삶의 현장을 보여 주는 다락방입니다. 일반 아이를 키우는 순원은 사랑이 가득한 배려를 전하고, 장애 아이를 키우는 순원은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난 순원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서로 기댈 언덕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지체로서 다락방을 건강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다움하우스에서 해오던 다락방을 이제는 순원들의 집과 갓 출석하기 시작한 순원의 음식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음식점에서 큰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미안해 작게 부르며 조심하였는데, 이제는 직원들이 저희를 보면 '예배드리러 오셨네요' 합니다. 다락방 하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도 하기에, 항상 분이 되고자 하는 자연스런 훈련은 우리 다락방만이 덤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실천하는 우리 다락방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 영혼의 사위가 있는 조각보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송파1 다락방 순장 박선아



저희 다락방은 현재까지 송파에 있는 유일한 다락방입니다.

서로가 송파구 전역과 대치동까지 흩어져 있어 매번 차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나이로는 위아래 8,9년을 커버하고 모태신앙부터 시작하여 다락방에 처음 나오시는 자매님까지 서로의 상황은 다르지만 각자 다른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름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후의 삶의 변화를 은혜롭게 나눠주시는 집사님을 시작으로 삶의 고백들을 늘 진솔히 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집사님, 스스로 진단과 해법을 고백하시며 영적 갈급함으로 다락방을 사모하여 나오시는 집사님, 처음으로 다락방에 나와 교재가 어렵지만 사귀려고 하는 기분이라 하시며 힘써 노력하시는 자매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이시는 집사님,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비로소 완전체가 되는 조각보 다락방입니다.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움을 알기에 살기 위해 모이기를 애쓰며 각자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다른 상황에서 인도하신 모습들 속에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길 애쓰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다락방이 되길 소망합니다.



## 외유내강 한결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남자2 다락방 순장 김종준

저희 다음 남자 2다락방은 다음교회 성도 중에서 교회에 가장 가까우면서 또 가장 멀리 살고 있는 순원들로 구성되어진 잔잔한 다락방입니다. 내공 신앙 김종준 순장님, 김동 기도 송철 집사님, 성실 신앙 이광재 집사님, 초보 신앙 이승언 성도로 구성되어진 조용하지만 깊은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조용한 자기 실천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신앙적 성실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세우지는 않지만 분명한 신앙적 자신감과 내적 실천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송철 집사님과 이광재 집사님은 아예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올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차이가 없는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다락방이 되기를 기도 하였습니다.



## "처음사랑" 끝까지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다음5 다락방 순장 김재금

저희 다락방은 주중 "처음"으로 모이는 수요다락방입니다. 다른 종교와 교회를 두고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다음교회에 등록하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계신 임효순 자매님과 이현희 자매님, 오랜 시간 예배반주를 했지만 다음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섬김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는 남정현집사님, 예배의 기쁨과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며 "처음사랑"을 완전히 회복하셨다는 심민경집사님, 2년차 초보순장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순원들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에 힘 얻는 '처음순장이 주님의 뜻 안에 모여 함께하는 다락방입니다. 세 명의 수험생을 둔 수험생다락방으로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내 자녀보다 다른 아이를 위해 이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보기는 "처음"이라는 고백이 있는 사랑이 많은 다락방입니다. 시험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넉넉히 승리케 하시리라는 확신과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안에서 항상 처음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다락방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열린문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서초1 다락방 순장 김호선



저희 다락방은 순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순원들을 인도하여 오는 열린문 다락방입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미모의 순원 6명 중 아직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매들이 세분입니다. 저와 예전부터 다락방을 오래 같이한 안혜연자매가 2년 전에 민지영자매를 또 1년 전에는 광경혜자매를 다락방에 인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락방에 합류한 김세정집사님이 후배인 김현이자매를 모시고 왔습니다. 다락방 시간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말씀을 나누는 순원들을 보면 가득히 찬 창고를 보는 듯 행복합니다. 이렇게 순장보다 전도도 잘하고 섬기는 것도 더 잘하는 자매들입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은 얼마나 신나실까요? 소망이 있다면 앞으로 훈련받는 자매도 나오고, 다락방이 좋아 이웃에게 다락방을 잘 소개하고 인도하여 제2, 제3,....다락방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누어져 계속 순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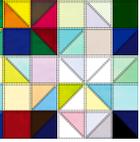
서초1 열린문 다락방!! 화이팅!!

## 우등보다 개근, 성실한 발걸음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강남4 다락방 순장 노은주



저희 다락방 순원들은 모두 도곡동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처음 신앙생활 하는 초신자들입니다. 순원 모두 같은 학교 학부모로서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한 재행자매가 윤정자매와 숙향자매를 전도했고 마지막으로 미경자매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금요일 오전은 절대 다른 어떤 일에도 양보하지 않고 다락방을 우선순위로 1순위로 생각하는 출석률 100%를 자랑하는 다락방입니다.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재행자매는 조용하지만 우리 자매님들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우리다락방의 막내인 윤정자매는 막내이지만 오히려 언니들을 챙겨주는 믿음직스러운 자매님입니다. 다음교회의 첫 세례자가 된 미경자매는 특유의 유머로 저희 다락방의 분위기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다락방에서 배운 말씀을 가정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매님입니다. 아이스하키를 하는 자녀를 둔 숙향자매는 아이가 토요일 밤 늦게까지 연습하고 돌아와서 피곤하지만 주일학교를 출석 시키려고 애쓰는 모습...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매님들입니다. 저희 순원들 모두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며, 서로 친구처럼 가족처럼 같이 아파해주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매님들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우리다락방 자매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초짜 순장의 은혜

박경연

안녕하세요. 다음 4 다락방 순장 박경연입니다.

다음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저희 다락방의 올 한 해는 눈물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눈물과 좌절은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기쁨은 주님께 드리는 감사로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모든 다락방이 갖는 개인의 상황과 경험은 다르지만, 다음의 식구로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와 기쁨은 그 어느 해보다 감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정집사님,

제가 힘들 때마다 조연과 위로로 항상 힘이 되어 주시던 집사님이 어느 날, 재일이가 다쳤다며 울며 주신 뜻밖의 전화에 얼마나 놀랐는지요. 부족한 초짜 순장으로 어찌할 바 몰라 마음 졸였지만, 결국 집사님 곁에 있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긴박한 상황에 저 또한 기뻐 언덕은 주님, 그리고 순장님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재일이가 다음에서 유명해졌지만요. 성경연구반에서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로 일상의 삶까지 변화되었다는 말씀에 또 저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요. 때로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거나 우매하여 앉아 울고만 있을 때도, 언제나 손잡고 한결같은 더 나아가자 하시며,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기억하셨던 집사님, 빌린 마굿간에서 나시고 빌린 무덤에서 마지막 몸을 뉘셨던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찬미하시며, 주님의 은혜는 어찌하여도 값을 길이 없다고 고백하시는 집사님으로 저는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김집사님,

서로 아이들의 학부모로 만나 순장과 순원이 되어 다음에서 한 해를 같이 했지요. 믿지 않는 남편의 전도를 부탁받고, 분위기 한껏 만드셔서 저희를 초대하시고 믿음을 전하시려 애쓰심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몇 해가 흘렀네요. 그때만 해도 생각지 못했지만,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음교회에서 함께 하며, 구집사님은 남순장님으로 집사님은 믿음의 동역자로 든든히 서계시니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큰 아들 자훈이의 진로에 그동안 마음 많이 쓰고 애태웠지만, 결국 주님의 약속하심대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저희의 큰 기쁨과 감사였고, 내년에도 앞으로 집사님 가정에 주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것이 될지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마포 장자매님,

십수년을 자매처럼 지내면서도 주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함이 항상 맘에 걸렸는데, 제가 순장을 하니 다락방에 한 번 와보란 부탁에 첫 발을 디디게 된 건 저에게 감격이었어요.

더군다나 운영하는 식당에서 한우메뉴를 개시하는 날 우연히 그 가게에서 한우 홍보 영화 촬영을 하게 되었다던 자매님의 전화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다 듣고 이런 걸 우리는 간중이라 한다 했더니, 그런 것 같다고 수궁해 준 것도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 예수님이 좋은 분인지 같고, 목사님도 참 좋은 분이고, 되신 분인지 გადა 말하며 목사님께 딱 한 번 돌려야겠다 하더니 정말 딱도 돌려지죠. 자매님의 믿음의 길을 제가 장담하고 책임질 순 없지만 그래도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목사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순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순원은 또 누군지를 알게 된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으로의 믿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실거라 믿고 그 바통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현주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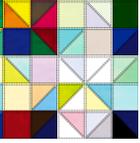
언제 봐도 항상 예쁘고 밝아 현주자매를 보면 믿음이 함께 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지요. 만남의 기쁨을 선사하는 지혜로운 미래의 집사님, 다음에서 새로운 믿음의 시작과 다락방을 함께 함이 어느덧 1년이 되었네요. 생각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은 몇 해 동안 다락방을 같이 하기 전부터 예비하신 듯합니다. 윤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 사랑 안에서 예쁘게 자라가는 윤서를 통해 양육의 기쁨도 알게 됩니다. 자매님의 가정 또한 내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하실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영자매, 소현자매, 경희자매,

매주 항상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늘 함께였지요. 말씀이 그리워 나온다는 이영자매의 말에 다락방 준비를 거룩한 부담으로 매달리게 했고, 순장으로서 돌리는 안부전화에 감사하는 모습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사랑의 의무임을 알게 해주셨지요. 그리고 소현자매, 15년 전 저의 모습이 오버랩되며 더욱 저의 마음이 가게 했고, 애태우며 기도하게 했지만, 주님은 선하심과 예비하심으로 건강하고 예쁜 태은이를 만나게 해주셨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 한 해는 박경연이라는 이름보다 주님께서 주신 순장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어느 한 해 보다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숙한 순장이었지만 오히려 순원들의 사랑과 위로로 한 해를 버렸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다락방이었음에 저희 다락방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 부부 신앙일기

정기용 소윤정 부부

사랑하는 남편에게,

첫째 경호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내가 회사 퇴직을 하면서, 올 한해 우리 가정에게, 특히 나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또한, 아버님, 사동생, 사랑하는 내 남편, 친정 엄마, 친정 아빠, 그리고 친동생 등이 한 번씩 크게 아프거나 입원을 하게 되었네요. 어찌 보면, 매우 우울하고, 쉽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영적 보금자리로 우리 가족을 인도하셨고, 많은 중보기도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또한, 주중 다락방을 새롭게 시작해 보면서, 일상의 삶의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 나눔을 통해, 위로받고, 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주일 말씀의 은혜에서 끝나지 않고, 주중에 실제 삶 가운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도전 받기도 하고, 위로 받는 다락방 시간이 나에게 참 귀한 시간 이예요. 육아에 대한 많은 지혜도 배우고, 아이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엄마로서도 큰 힘이 얻게 되고요. 많은 여러 환경의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도록 보내주신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답니다.

당신도 새롭게 시작한 다락방에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길 소망해요.

당신의 아내, 윤정



사랑하는 아내 윤정에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거친 광야 환경 속에서 매순간의 안위와 생존을 걱정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원망이 교차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내 안에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예기치 않은 일들과 고난의 연속임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기에 이러한 인생의 고난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매순간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며 인내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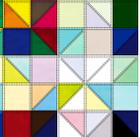
그러나 2014년 한 해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러한 믿음의 반응이 쉽지 않은 일임을 보게 됩니다. 위독했던 아버지를 뵈고 심장 수술과 시술 중 어떤 결정을 할지 밤새워 중환자실을 지키며 고민할 때, 밤새 복부 통증을 견디고 아침에 충수돌기염 수술을 받기위해 출근할 때, 만삭의 처제가 넘어져 팔꿈치를 다쳐서 응급실에서 함께 있으며 수술 시기를 결정할 때, 어머니가 경호와 놀아주시다가 넘어지셔서 팔꿈치를 다쳐서 함께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결정할 때, 얼마 전 아버님이 순간적으로 기억을 잃으시고, 몸을 가누지 못하셔서 응급실에 가셨을 때 등등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들의 나약한 믿음과 힘만으로는 감당키 어렵다는 것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허락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락방 모임에서 삶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고, 말씀 가운데 삶을 돌아보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나약해진 내 마음을 살펴보고 환경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지만 조금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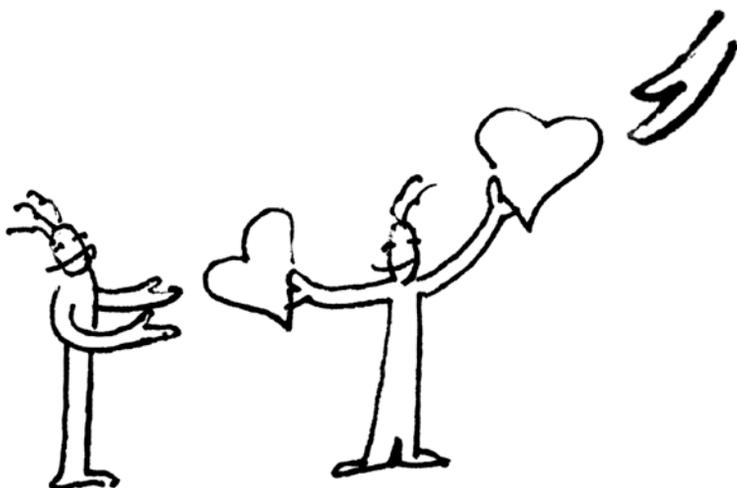
앞으로 걸어가 우리들의 앞날에도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인 다음 교회와 다락방의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의 연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울러 당신과 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함께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매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남편이자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싶은 기용...





하나님의 마음을  
♥ 하시는 것이



"제가 중학교때 배운 찬송가 2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라는 찬송가입니다. 교회에 나오니 우선 편안하구나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회에 나오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부담을 제대로 져야 하는 문을 어렵게 열었습니다. 저는 십자가 짐 같은 그 고생이 사실 두렵습니다. 과연 나에게 십자가 짐을 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러한 힘이 있는지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_ 이승연 성도의 세례식 간증 중에서

1. 지난 주에는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은 언제, 어디서 보아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믿음에 대한 고민을 진솔하게 나뉘어주시는 세례식 간증이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다가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두렵고 자신이 없지만 그 길을 가고자 한다는 고백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믿음의 정 의가 담겨 있음을 느껴졌습니다.

2.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레디컬>의 저자인 데이비드 플랫 목사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플랫 목사는 시편 67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는 기독교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지만, 여기에서만 멈춘다면 결코 참된 기독교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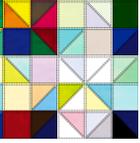
3.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은 불변하는 진리이며, 이 말처럼 우리 생애 기쁨과 열정을 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만 멈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반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책 <예수님처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받는 것에서 멈추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의 빛,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4.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에만 멈춘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부딪히는 고난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난제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더욱 귀한 존재로 다듬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현재의 고통과 고난도 나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고난을 변장된 축복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 힘을 잃어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플랫 목사의 도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복 주신 이유에 대해 기억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소명이 빠진 사랑은 결국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6.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만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아침입니다. 





THE  
patchwork  
of GOD 2<sup>nd</sup>



# 성경연구반,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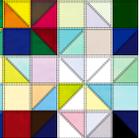
박영일 집사



A: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요" B: "그렇군요! 그런데 믿음 좋다는 게 뭐죠?" A: "아, 그거요? 그러니까... 음.. 그리고 보니 저도 믿음 좋은 게 과연 좋은 것인지 꼭 확신이 들진 않군요." 몇 개월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두 신앙인의 대화였다. 물론 그 중 한 명은 나였다. 그리스도인들(좀 더 정확하게는 교회 가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윤리 기준도 통과를 못하여 안쓰럽게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리라. 새삼 믿음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본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다락방 순장을 하며 스스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며 안간힘을 썼던 내 모습이 겹쳐진다.

다음교회 출석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다. 매 주일 하나님을 조금 더 민낯으로 만나는 기대감이 점차 들었다.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좀 더 잘 아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수천 년에 걸쳐 놀라운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오신 하나님, 나의 앞날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고 그 분 말씀의 맥락을 아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가깝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다음 성경연구반을 출석했다. (사실 출석 횟수가 많지는 않았고, 출장이나 과제 일정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내 모습을 알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쑥스러워진다.) 역시 담임 목사님의 열강은 저녁시간을 떼어 달러온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각 교회에게 칭찬을 하는 것 같다가도 왜 이렇게 쓴 소리를 한 마디씩 하시는지.. 연구자료와 슬라이드를 통한 거침없는 강해는 성경 속에 숨어 계시며 찾는 이에게 선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씩 발견하는 즐거움을 주었다. 주일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라면 성경연구반은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는 시간일 것이다. 강의 도중 불쑥불쑥 찾아오는 조별 토론은 짧은 교제의 시간이다. 토론결과 발표로 얻은 책 선물은 생각지 못했던 팀이었다! 4기 성경연구반도 2회 밖에 남지 않았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2014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게 된다. 매 해를 보내며 올해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었다고 푸념하곤 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몇 가지 즐거움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다음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경연구반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었다는 것...



# 돼지저금통 가출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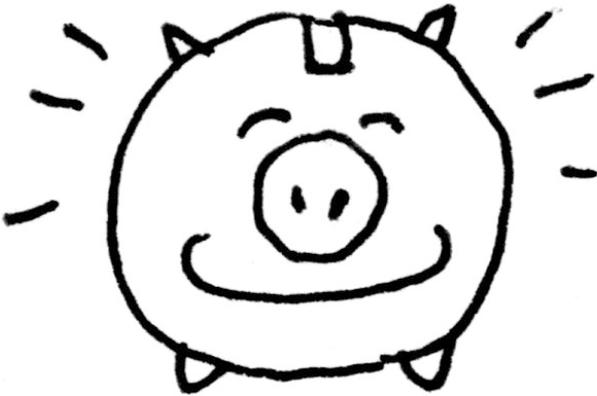
1. 다음하우스 1호 지하 송천홀에는 돼지저금통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커피 머신을 이용하는 성도님들이 자율적으로 후원금을 넣어두는 저금통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돼지저금통이 잠시 가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양면테이프로 붙여놓은 돼지저금통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송천홀 싱크대와 수납장을 찾아도 보아도 도통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동안 성도님들이 모아주시는 마음의 무게로 인해 마음이 더욱 무거웠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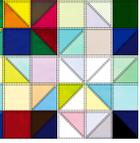
2. 사실 돼지저금통은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저금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면 거창하지만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텅치(?)에 걸맞게 오래 되다 보니 돼지저금통에 쌓인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적잖은 금액을 저렇게 방치해 두어도 되나, 혹시라도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돼지저금통이 사라지자,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에, 아니 우리의 가치로 인해 상심이 컸다고 합니다.

3.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고민 중에 조금은 "미련하고 허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방법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다면, 세상의 칭찬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 감동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래도 될까?" 싶을 정도의 미련하고 허술한 방법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누구나 쉽게 가져갈 수 있지만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지만 누구나 가져다 놓을 때, 세상과 교회가 다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4. 다행히 가출한(?) 돼지저금통은 1층 창고에 예쁘게 웃으며 잘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도서관을 오픈 하고 나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누군가 걱정이 되어 가져다 둔 것입니다. 돼지저금통을 발견하고 잃어버린 자식을 만난 것처럼 반기웠다고 합니다. 아마도 돼지저금통이 갖는 우리의 가치 때문이었고, 그 동안 함께 세워오고 지켜왔던 모두의 마음이 새삼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5. 이제 자란 만큼 자란 돼지저금통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당분간은 재활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꿀꿀이"라는 새로운 애칭도 생긴 만큼,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유지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미련하고 허술한 공동체에 대한 꿈은 끝까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함과 허술함, 그리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만이 세상의 칭찬이 아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❶





# 가정예배, 하나님의 지팡이

김영인



결혼하기 전에는 나는 교인도 아니었다. 어릴 적 크리스마스나, 여름 성경학교 때 몇 번 친구를 따라 가본 것이 교회 경험의 전부였다.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사랑의 교회 교인이셨다. 교회에 무척 열심이신 시어머니의 무언의 압력으로 남편과 나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바로 그 주일부터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서슬이 퍼런 옥한흠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가 진행되고 있었던 때였다. 낯선 소리만 듣기에 멍멍하고 졸다가 잠깐 깨면 무섭기까지 했을 정도로 옥목사님의 그

명설교가 도무지 나에게 다가오질 않았다.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그런 지루하고 멍충멍충한 시간이 한주 두주 지나면서 언제부터인가 목사님의 설교는 나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따라 나선 대각성 전도집회에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에 그런데 '난 뭘했나?' 하는 생각에 부끄러움과 예수님께 대한 죄송함과 깊은 감사함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

그날 이후 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다. 이젠 시어머니의 무언의 압력으로 참여하였던 주일예배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메모하고, 주중에 묵상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 적용해나가는 문제로 씨름하면서 지냈다.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나를 사로잡아 성도로서 해서는 안되는 것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냈었다.

그런데 남편은 슬슬 예배에 한주 두주 빠지더니 금기야는 아예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기로 시작했다. 당시 우리는 목동에 살고 있었고 시택은 오륜동이었는데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시택에 와서 시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갔었는데 그때도 물론이거니와 목동에서 홀로 두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두 번씩이나 같이 타고 교회에 갈 때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그래도 나는 말씀이 어찌나 달고 좋던지 은혜를 쌓는 자리로 기꺼이 달려 나갔다.

다락방과 훈련프로그램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참된 기쁨이 나를 사로잡았고 나이를 먹어 육체가 후해 하여져도 영혼은 영원하며 매일 새롭게 소생 되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믿음을 키



우지 못하고 있는 남편에 대하여 마음이 다급해졌다. 교회 가자고 '버럭' 화를 내보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어떤 곳에서건 항상 나의 기도제목 일 순위는 '남편의 주일성수'였다. 그래도 남편은 요지부동이었다. 시간이 지나 순장지역 십여 년을 하면서 나의 기도제목 일 순위가 여전히 '남편과 두 아들의 주일성수'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그리스도인으로써 아내와 엄마로서의 내 삶이 가족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않아 그런 것 아닌가하는 자책감이 계속 나를 따라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양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성도로써 당연히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부분에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가?"하는 숙제를 던져주셨다. 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해온 시누와 두 동서에게 연락을 하였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서 매주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예배 장소는 매주 우리 집을 오픈 하겠다고 했다. 시어머니 생전에 주일 오후에 모이기를 힘쓰는? 전통을 만들어 놓았던터라 가족들이 모이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었다.

그 주일 군에 간 조각만 빼고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이니 열셋! 드디어 첫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예배를 드리자니까 다들 축색스러워하고 오후 세시라는 어중간한 시간 때문에 아이들은 불만이 많았다. 그렇지만 남편 형제들은 다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는 사실에 즐거워하였다. 식사 준비와 예배 인도는 전적으로 여자들이 몫이었지만 무조건 즐거웠다. 한주 두주 지나면서 찬양 한국 더 하자는 신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이젠 똘

구나!' 싶었다. 그런데 역시 빈틈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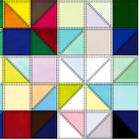
추석 전후에 사사로운 문제로 남편과 다툼이 있었다. 난 언제나 마음 한구석 시댁 일에 있어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렇게 매주 집을 오픈하여 가정예배도 드리는데 남편은 알아주기는 커녕 늘 '조금 더'를 요구하였고 나는 너무 서운한 마음에 차를 몰고 집을 나왔다. '어디로 가야하나' 하는 머뭇거리고 있는데 내일 드릴 가정예배가 생각났다. 우리 집에서 드려야 하는데 이런 일로 예배가 무산되어 버리면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카드가 더 이상 없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차를 유턴 하여 결국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날 우리 열세명은 여느 주일과 마찬가지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그토록 원하던 것을 선물로 받았는데 얼마나 지났다고 당연히 할일을 해놓고는 알아주지 않아 서운하고, 교만해지려는 내게 하나님은 카운트 펀치 한방을 멋지게 날리신 것이다.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정말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가정예배를 드린지가 어느덧 6개월이 다 되어간다. 이 가정예배가 잘 뿌리 내려 모든 식구들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져가는 모습들도 미리 그려본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 이름만을 높이는 가정 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 송천홀은 아십니까?

1. 다음하우스 지하 1층의 이름은 "송천홀"이라고 부릅니다. 전주에 있었던 송천교회의 이름을 따서 송천홀로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을 결심하고 첫 기도모임을 하는 날, 반가운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게 훈련을 받고 사업자 필리핀에 출국해 분이신데, 국내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개척기도모임에 오신 것입니다. 오랜 만에 가족과 함께 귀국한 터라, 여러 모로 분주할 텐데 개척기도모임에도 오셨고, 출국 전에 아내 집사님과 함께 잠시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 아내 집사님의 아버지는 전주에서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면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였고, 후임 목회자를 정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도 분들은 떠나고 마지막에는 5~6명의 성도만이 남아 기도하며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는데, 교회를 정리하여 생긴 재정의 일부를 새롭게 개척하는 우리교회에 현금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 교회의 마지막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받는 것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3. 예전에 어느 이민교회 목회자 분에게서, 자신은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게 죽는 비전"을 나누고 계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역사와 교세를 자랑하던 교회였는데, 지역 내 이민 인구 자체가 크게 줄고 성도들이 고령화되면서,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독특한 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모든 교회는 언젠가 죽습니다. 다만 아름답게 죽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이제 막 개척을 시작했지만 우리교회도 언젠가 죽게 될 것이고, 우리 역시 아름답게 죽는 것이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답게 죽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알의 썩어진 밀알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교회가 사라진 후에도 우리교회를 통해 선한 영향력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많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썩는 밀알이 되어 사람과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처음 우리교회를 후원했던 교회가 썩어진 밀알이 된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도, 우리교회에 하나님께서 썩은 밀알이 되는 비전을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5. 이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죽음을 맞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고 죽음은 아름다운 삶과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봄으로 내가 선이 자리에서 썩어진 밀알과 같은 삶을 살기를 기대해 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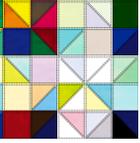




다음주일  
학교이  
야기







# 그냥~

주일학교 / 학부모 신원선



저희 아이들이 다음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하기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오래 다녔던 교회를 떠나 찬바람을 맞으며 이 교회 저 교회를 헤매다, 우연히 알게 된 다음에서의 첫 예배... 아이들은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이전 교회의 주일학교보다도 칼바람 부는 겨울, 소강당 복도와 입구에서 드리는 다음 주일학교의 예배가 더 좋다고 했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되어서 아이들에게 왜 그런지 여러 번 물어보면 한결같이 웃으며 "그냥~"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에 아이들은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훨씬 더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첫 예배 후에 다음에서 몇 번 더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만일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으면 많은 고민과 가족회의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서로서로 너무나도 모르던 초창기에 아이들을 생소한 겨울수련회에 무턱대고 보냈던 기억. 대형 관광버스에 아이들을 태우면서 옆에 계시던 분이 선생님이 만나 싶어 여러 번 뒤돌아보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분이 사모님이셨다는 것을 알고 혼자 얼마나 웃었던 지요. 요즘 저희 아이들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큐티하기, 선생님께서 정성껏 준비해주신 말씀카드 암송하기, 주일 예배 정성껏 드리기 등을 통해 다음 세대의 다음인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년 스스로 큐티와 암송을 해나가고 있지는 못해 엄마의 잔소리를 듣기 일쑤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니 부모로서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아이들에게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섬김의 모습, 참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텐데... 그래서 자꾸 말씀을 배우고, 반성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조각보로 쓰일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드립니다.

# 숨 쉬는 것처럼

주일학교 / 학부모 정아란

## 언젠가부터

주일학교 / 학부모 김유진

저는 다음주일학교에 다니는 세린(초6), 예린(초4)이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다음주일학교에서 좋은 신앙의 습관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 너무나 기특하고 감사한 마음이 넘쳐 글을 나눕니다.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기도를 즐거워하며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일날 앞에 나아가서 대표 기도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컴퓨터 앞에 앉아 기도문 작성하는 아이들의 모습들은 대견하면서도 아이들 열심에 못 미치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언젠가부터 찬양 팀에 있는 아이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차 안에서 찬양연습을 하기시작하였습니다. 그날 드릴 찬양을 연습하며 서로 세심히 챙겨 주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언젠가부터 숙제를 챙기는 것보다 아이들이 큐티를 먼저 들고 앉아 하는 것은 이제 몸에 밴 습관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언젠가부터 다음 교회를 다니는 하루하루가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다음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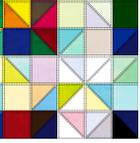
작년 12월 마지막 주부터 5살, 11살 두 아이를 주일학교에 보내는 정아란입니다.

작년엔 4살, 10살이었네요. 그때 주일학교 초기라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아이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많았다고나 할까요? 처음엔 예전 다니던 교회에 비해 교회가 너무 작다고 투덜거리더니, 금세 선생님들의 사랑을 느끼고, 뭇지 모를 은혜로운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좋아라 하며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역시 아이들이 더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즐겁게 잘 다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지만, 하반기에 시작한 큐티와 성경암송은 더욱 뿌듯함을 느끼게 하네요. 부모로서 성경 지식이 없어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게 늘 아쉬웠는데, 조금씩 배우기는 모습이 참 감동입니다. 아직은 성경을 이야기로 생각하고,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크지만, 이렇게 어린 시절 배우고 들은 말씀들이 언젠가는 이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처럼, 어린 시절 듣고, 외웠던 말씀들이 아이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엄마는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해 아직도 못 외우고, 아직도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아이들에게는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고, 절대적인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6살 큰 누나의 지도하에 아동다움 큐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니 말씀 한 자락을 쥐고, 빛나는 어린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지도 함께 성장하는 엄마가 되기로 다짐해 봅니다.





# 인큐베이터

주일학교 / 교사 송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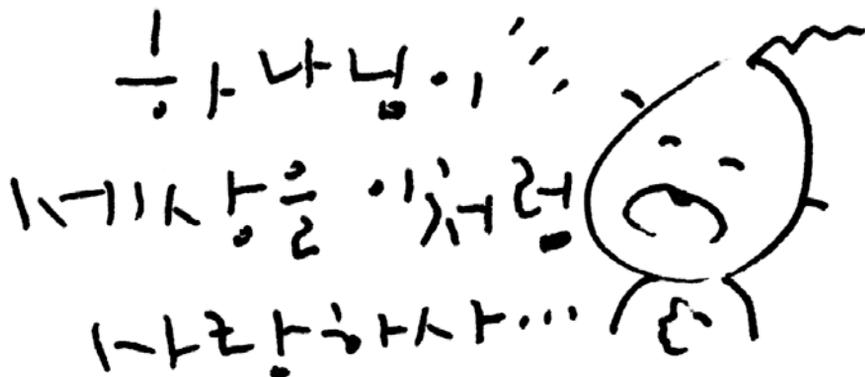
저는 과거에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섬겨본 적이 없었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섬김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련하신 주일 학교 동료 선생님 분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배워나갔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 주 한 주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성경 암송시간 덕분에 아이들은 앞에 나가서 암송하는 것에 자신감을 더 갖게 되었고 7살 아이들 전원 매주 빼놓지 않고 암송을 해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성장한 몇몇 아이들은 찬양팀 참여나 대표기도도 자발적으로 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전도사님 설교를 잘 듣고 GBS(Group Bible Study)이 되면 우르르 뛰어나가 다들 앉전히 자리에 앉아 선생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GBS시간에 서로 읽고 답하겠다고며 적극적으로 임해 주어서 또 감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주일 학교를 섬기면서 교회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찬양, 대표기도 등 다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게 해주고 아이들을 성장시켜주고 세워주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든 바른 신앙과 자신감을 가지고 뭐든지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 양성 인큐베이터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일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어여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주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도 섬김의 기쁨이 넘치고, 아이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바라고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사의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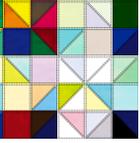
주일학교 / 교사 허찬미



저는 작년 성탄절부터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계시던 어머니를 따라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보조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다가 지금은 어느새 유아부 담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항상 가르침을 받기만 하던 저에게 누군가를, 그것도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봉사를 그저 부담 없이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을 보러 가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던 탓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먼저 다가와주는 아이들의 모습에 이런 어려움보다는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은 어린이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매주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은 3세부터 6세의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과연 말씀 암송을 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반 아이들 대부분이 글씨도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염려와는 달리 요즘은 세 살 짜리 아이까지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형, 누나들처럼 완벽하게 말씀을 암송하지는 못하지만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쥐고 웅알거리는 모습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은혜롭습니다. 올 여름부터는 찬양 및 율동 교사로서도 아이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목청껏 찬양을 부르고 그 작은 몸으로 열심히 율동을 따라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행복합니다. 비록 섬기면서 몸은 좀 지칠지라도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합니다. 요즘은 주중에도 아이들을 만날 주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은혜롭습니다. 아이들은 제 자신을 반성하게 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합니다. 교사라는 자리에 있는 것은 저일지라도 진정으로 가르침을 주는 것은 아이들이인 것 같습니다.



# 힘 있는 한 조각

주일학교 / 오동진 전도사



안녕하세요 ^^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이부서 전도사 오동진입니다.  
이렇게 조각보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가 다음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 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교회에 여러분들을 만나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  
합니다. 다음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좋은 점이 있지만 저는  
조각보 그림과 그 의미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각보에는 교회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4살 때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에는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신앙을 잘 알지는 못했고 마냥 좋고 즐거  
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릴 때 교회를 가면 품에 안아주시던 주  
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따뜻함이 여전히 기억나고 친구들과 형, 누나,  
동생들과 어울렸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렸을 때에는 교  
회는 정말 좋고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20살이 되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교회는 저에  
게 좋은 기억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 개인의 성공과 욕망을  
위하여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축을 위하여 빛을 지고, 성도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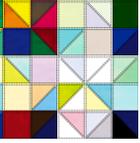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였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너무나 갈급했던 당시에 교회에서 복음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며 너무나 절망했던 시간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한창 인생의 문제를 생각하며 죄의 문제와 삶의 문제로 너무나 방황했던 20대 초반이었기에 그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는 교회와 목회자는 저에게 많은 실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비난했던 목회자들과 하나님

앞에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마음속으로 더 약한 저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자격 없는 저에게 감당할 수 은혜를 주셨기에 저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되도록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교회에 와서 조각보를 보았을 때 정말 감싸고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구원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주님의 교회가 바로 "한두 사람의 헌신이 아닌,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색깔의 천과 실들이 모여 만들어 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목표로 하는 것을 보고 또 실제로 다양한 모습을 가진 많은 좋은 분들이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것을 보며 저도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교회를 세워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색깔의 천과 실들이 모여 만들어 가는 공동체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조각보를 만들어 가시는 분을 알고 그분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우리 자신이 흠이 있는 한 조각이더라도 아름다운 조각보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흠이 있는 한 조각이지만 주님 손에 맡겨진 흠이 있는 한 조각으로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져갈 것을 기대합니다.





# 발화점 수련회

청소년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 김희원(중1)



2박3일 동안 수련회를 갔다.

첫날,

전부터 알던 친구들, 아직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친구, 언니, 오빠들 ...

이번 수련회를 통해 더욱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후발대가 아직 도착 전이었지만 레크레이션을 먼저 했다. 아주 작은 이벤트지만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여서인지 모르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을 좋아하는 내게는 너무 행복했다. 후발대가 도착하자 예배를 드렸다. 아직 서로 모르는 사이라서 조금은 어색했다. 예배시간이 끝나고 제주도의 첫날밤이 마무리 되었다.

다음날,

어제보다 친해진 우리!!!! 나이, 이름도 아는 사이가 되었다. 오늘 예배도 별로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냥 습관처럼 말씀의 키워드만 잡고 생각만 할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 날 예배는 뭔가가 특별했다.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다른 날보다 집중을 하게 되었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와 깜짝 놀랐다. 어디 아프지도 않고 슬픈 일도 없었는데 눈물이 나왔다. 이 눈물은 무엇일까? 다 같이 기도제목을 나누는데 기도제목 하나가 생각났다. '이 수련회에서만 은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수련회는 2014년 중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고 가장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 이날의 은혜가 내 삶속에 항상 살아있어 불꽃이 꺼질 때마다 다시 켜질 수 있는 발화점이 됐으면 좋겠다.



# 거기서 거기?

청소년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 정두호 (고 2)

지난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꼭 가야 하나?' 하는 고민도 했지만, 내년에 고3이 되면 가기 어려운데니 마지막으로 가보자는 생각으로 저는 학교가 끝나고 뒤늦게 제주도로 출발했습니다.

제게 교회 수련회는 익숙한 연례행사로 초등학교 2,3학년 때부터 거의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이, 교회 수련회가 다 거기서 거기지...' 하는 생각에 이번 수련회도 기대를 많이 품은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수련회는 정말로 저한테 뜻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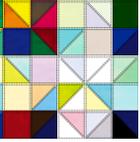
첫날 저녁, 후발대로 늦게 도착한 첫날은 조원들과 처음 만나 어색한 채 지친 몸을 이끌고 밤까지 이어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대성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수련회 첫 예배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밝았죠. 아침 일찍 간신히 눈을 뜨고 내려가서 QT를 한 다음, 한림공원에 가서 추운 동굴도 들어 가보고 조원들과 선생님하고도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사실 저는 이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후에 바닷가에 갔었는데 사실 저는 너무 추워서 한 시간 가량만 물놀이 한 다음에 밖에서 놀았어요. 감기 때문에 못 들어간 애하고도 놀고... 밖에서 보니까 어떻게 다들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지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잠도 안자고 밤 샌 애들이 한둘이 아닐텐데... 바닷가에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된지라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다시 조별로 모여서 다니엘에 대해서 배우고, 아니 생각해보니 수련회 거의 대부분을 다니엘을 배운 것 같기도 하네요.

저녁 식사 후 다시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전 수련회 둘째 날 저녁예배가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찬양함→더 열정적으로 찬양함→설교 시작→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 나눔→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함) 다음교회 수련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궁금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정말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도 그냥 잠잠히 기도하는 것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었고(너무 회개에 초점을 맞추면 울지 않는 아이들이 심정이 굉장히 어색해지거든요...저도 그랬고...막 다 우는데 어 나도 내 잘못 회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이라고...), 게다가 나름대로 친해진 선생님들과 조원들과 같이,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방주교회에 갔었는데 말씀도 은혜가 넘쳤고, 교회도 정말 멋졌습니다. 이날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랑 이야기를 많이 한 동생을 멘토링 해준 것 같네요.

저는 수련회나 캠프를 그리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아~ 하루만 더 있다가 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던거든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는 그래도 있는 내내 즐거웠고 더 있다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적은 인원들끼리 서로의 얼굴을 다 아는 상태로 지내는 것도 좋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수련회를 다녀와서 교회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능을 코 앞에 둔 수험생이라 내년에는 수련회에 함께 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청년부 가서라도 기회가 되는대로 주일학교 동생들과 신앙적인 나눔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회가 거기서 거기라는 저의 생각을 바꾸게 한 다음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 기대하지 않은 선물

청소년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 서원석 (고2)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다음교회 여름수련회를 다녀온 고등학교2학년 서원석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먼저 교회 수련회인 만큼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제주도까지 가서 은혜를 받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멀쩡히 잘 지내다가 돌아올 수 있을지 부터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해서 바로 집회를 드리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찬양 인도와 반주를 해주시는 선생님들과 열심히 찬양하는 친구들을 보며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 저도 스스로 회개하며 저 또한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였습니다.

찬양 후에는 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 실임을 증거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피곤하고 당장이라도 누워 자고 싶게 지쳐 있었지만 누구하나 투 정 없이 집중하는 모습에 저는 또 다시 은혜를 받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팀별로 큐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시간 은 큰 기대 없이 참석을 했지만 놀란 것이 모든 아이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앉아서 성경을 보며 나눔을 하고 선 생님들께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지루한 큐티 시간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버 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은혜이자 감사함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이지만 집회뿐만 아니고 함께 바다에도 가고 바베큐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정 말 공황 가는 길에서까지 걱정과 근심으로 불안하고 과연 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 며 적응을 못 할까봐 기도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선생님들과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내던 분들과같이 너무 편안하였고 친구들과도 시간이 갈수록 점차 친해졌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 회에서 다음교회의 매력에 제대로 빠진 것 같습니다. 망설이는 발걸음으로주저하며 나갔던 수련회가 제 인생에 오랜 시간 기억될 소중한 추억이자 은혜의 선물 보따리가 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저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경험을 가지게 기회 주신 다음교회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친구들 그리고 그 누구 보 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정말 소리 내어 감 사드립니다.



# 아버지의 마음

청소년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 교사 한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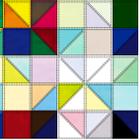
다음 교회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소년 주일학교 학생들과 대학청년부 지체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지난 7월18일부터 제주도로 2박3일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대학청년부 지체들이 중고등부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 인생과 신앙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었는데 선생님들과 대학청년부지체들은 매주 기도모임을 하면서 수련회를 준비 하였습니다. 그런 수고와 노력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날씨와 좋은 만남을 허락 하였고 우리는 제주도에서 즐겁고 보람 있는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매일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찌들었던 몸과 마음의 짐들을 벗어 던지고 자연 속에서 뛰놀면서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진행되면서 평상시와 다르게 아이들의 얼굴에 활기가 넘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교사들도 함께 즐거워졌고 더불어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대학청년부 멘토 그리고 선생님들과 같이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잘 들어 주어야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을 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학생들 간에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서먹했던 벽들이 허물어져서 서로 더 가깝고 친밀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하며 또한 여러 명의 대학청년부 지체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게 된 것도 수련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된 행사가 하나씩 진행되면서 수련회를 준비한 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수련회를 준비한 분들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과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한 대학청년부 지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여러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부족했던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 주셔서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 찾고 돌보는 작은 여행



수험생 기도회 / 김세정

7월말 수험생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회 첫 날 목사님께서 기도는 자녀를 위한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한 큰 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꿈은 더 크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수험생기도회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이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연약하여 어쩌면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자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가 진행되면서 왜 이 모임을 할 수 밖에 없었는가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수험생을 둔 우리들에게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갈증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 알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 백일기도를 하는 것과는 다른 무엇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깊이 간섭하여 주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역자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경쟁의 대상이지만 하는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주안에서 서로를 붙들어 주며 서로가 잘되는 것을 바라며 기도하는 이들의 하나됨은 우리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 주었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나왔지만 사실은 목마른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 기도회에 초청하시고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기도회는 어느새 말씀과 기도로 갈증을 채우고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찾으며 서로를 돌보는 작은 여행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은 여행에서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한때는 이름조차도 몰랐던 분들과 함께 이제는 이 여정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를 하고 있는 어린 지체들도 이 여행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기도가 여전히 미숙하고 우리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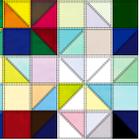


닥친 문제들을 믿음으로 성숙하게 대처할 정도로 변화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붙들어 주고 함께 빚어져 간다는 것 때문에, 아니 단지 "주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 < 수험생 기도모임에서 나는 감사 >

- \*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든든함을 갖게 되어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한 마음으로 중요하게 되어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 \* 더 많은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음에, 서로 위로하고 위로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 \* 슬픔, 기쁨 함께 나누는 동지애를 느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 어려운 시간 집사님들과 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 \* 힘든 시간 함께 기도하며, 기도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회로 끈끈한 동지애가 생겼습니다.
- \* 수험생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주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심한 부분까지 간과치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수고를 어떤 모습으로든 위로와 은혜주시길 믿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 함께 기도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 \* 함께 기도함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 \* 마음 속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시간들을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던 시간들을 기쁨과 감사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E  
patchwork  
of GOD 2<sup>nd</sup>



하나님 나라의 힘과  
아름다움의 사랑

"나의 선조는 노예선을 타고 이 땅에 왔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하인이었고 미용사였으며 경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보냈던 나의 유년시절, 나의 어머니는 슬퍼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춥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께선 털 헝겊, 실크, 방수 천, 부대 자루 등 구두나 간신히 닦아낼 수 있는  
 조각 천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운찬 손놀림과 튼튼한 끈으로  
 조각 천을 꿰매어 훌륭한 이불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힘과 아름다움과 교양을 상징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나라는 한 가지 실,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천으로 짜여진 담요가 아닙니다."  
 \_ 재시 잭슨

1. 하나님의 나라는 재시 잭슨의 말한 조각 천들을 모아 만든 이불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두 사람의 헌신이나 노력이 아닌,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색깔의 천과 실들이 모여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신약 성경이 몸과 지체를 비유를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2.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무의미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 보다 정확히는 그 사람만이 섬겨야 하는 빈자리를 하나님 나라에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능력이 없어 섬길 수 없다는 말처럼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은 가난한 마음이고 우리의 약함이며, 내 손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빈 손이며, 일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 안타까운 현실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소중함, 성령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좌우되는 현상이 점점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느 시대 어느 조직이나 리더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와 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조각보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어쩌면 "평신도를 깨운다."는 제자훈련 철학이 실현된 궁극적인 모습은 "평신도가 없는 교회"가 아닐까 합니다. 교회 내 모든 성도들이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고, 모두가 소명자요 사역자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주의 은혜로 힘이 다하도록 수고하는, 하나님의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인 조각보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다음교회가 상징처럼 사용하는 십자가 그림도 이 조각보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이 모여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공동체에 대한 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소명자이자 사역자로 세워짐으로, 조각보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보는 아침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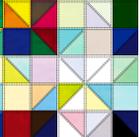




공동체

공동체란 무엇인가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신교서 회의를 그리며

1.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몰라, 영적인 가난뱅이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배우고 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과 더불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2. 왜 하나님은 믿는 순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며, 궁극적으로 구원이란 이 소명까지 포함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특권과 더불어, 동시에 믿는 순간 세상으로 보냄 받은 소명이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3. 과거에 우리는 흔히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소명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은 이유도 이 소명 때문이며, 따라서 교회는 존재하는 순간부터 선교적 사명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척초기부터 다음교회는 지역사회와 세상을 섬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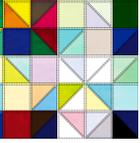
4.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하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한다는 원칙과, 우리가 가진 재정의 1/3은 세상을 위해 사용한다는 원칙을 나름 세워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척예배 때부터 컴패션을 통해 필리핀 대학생들을 후원하기 시작했고, 탈북청소년학교 식사봉사나 장학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상을 섬기는 차원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영어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5. 물론 개척초기라 재정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니고, 재청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다른 부분에서의 비용절감이 없이는 이런 원칙을 지켜 나가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한 분 한 분이 보이지 않게 너무나 많이 기도하고 헌신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 원칙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원칙을 지켜 나가기 위해선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겠지만, 이를 통해 다음교회가 선교적 사명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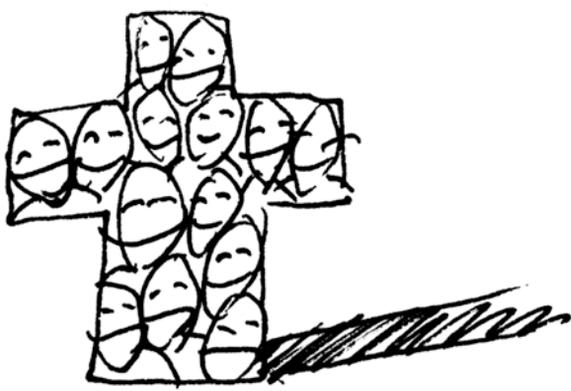
6. 저는 대학시절 철거지역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방 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놀기 좋아할 나이인데, 자발적으로 아무런 현실적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이런 봉사를 했다는 사실을 보면, 그나마 괜찮은 대학생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학 3학년 때 아는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 공부방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다른 후배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져서 좋다." 사실 우리는 그 친구들을 돕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7.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보내주시실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들이 필요하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적 소명을 주신 이유도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러하실 선교적 교회를 기대해 봅니다. 





THE  
patchwork  
of GOD 2<sup>nd</sup>



# 다움하우스 1호 vs 2호

1. 처음에 중등고등학교 강당을 빌려 개척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주중 모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만 드리고 주중 교제나 훈련의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한 달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의 다움하우스 1호를 얻어, 주일과 주중에 교제 및 훈련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2. 다움하우스 1호를 얻고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은 작지만 교회를 위한 공간은 있는데, 세상을 위한 공간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세운 원칙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얻거나 했다면, 세상을 위해서도 동일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개척예배를 드릴 때 컴패션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역과 재정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자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1/3씩 균형 있게 전개하고 지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월부터 탈북청소년학교 정기봉사와 비정기적 장학 및 후원사역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다움하우스 1호를 얻은 후, 다움하우스 2호는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고, 과연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초등학교생들이 많다는 점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지역사회에 바른 기독교적 문화를 창출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영어도서관을 운영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물론 개척초기라 여러 면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교회는 선교적일 때만 교회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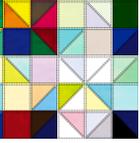
4. 오랫동안 장소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장소가 물색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던 중, 어쩌면 하나님께서 현재의 공간을 세상을 위해 먼저 사용하면 안 되겠냐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게 되었고, 현재의 다움하우스 1호 1층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 다만 교회 자체를 위한 공간도 필요하기에 다움하우스 2호는 성도들의 교제와 훈련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다락방 등의 소그룹 모임 공간과, 편하게 와서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던 터라, 기도실과 말씀 묵상을 위한 공간, 교제공간 등으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움하우스 1호 지하공간은 주중에는 성도분들은 물론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오픈 되어 누구나 편하게 교제 나눌 수 있고, 주일에는 1, 2호 모두 교제 및 모임 공간으로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6. 영어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면에서 많은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에 준 선교적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어도서관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늘 보내 주심 많이 느낍니다. 영어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공해 주시는 분들과 도서를 기증해주시는 손길들, 도서관 정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7. 결국 교회는 사람임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교회는 건물도 없고 십자가 하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름날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헤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모르고 가는 길이라 은혜가 더 하다

김보아



다음영어도서관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다음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중등고 근처에 다음하우스를 마련하고 성도들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할지 얼마되지

않았을 무렵,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영어도서관을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신기했던건 얼마 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목사님의 제자반 집사님께서 이에 꼭 맞는 목적현금을 보내주셨다. 말로만 듣던 개척교회의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다음에도 일어나는 걸 보며 놀라움과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다.

타영어도서관은 어떤 모습일까? 아끼자기하고 동화책 같은 인테리어에 카테고리 별로 잘 분류되어 있는 영어책들과 열람실, 멀티미디어룸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보다 훨씬 훌륭했다. "그런데 왜 텅 비어있을까?" 실제 영어도서관은 아이들이 쉽게 드나들 만큼 편안한 곳은 아니었다. 학부모들이 영어교육은 주로 학원교육에 의존하고 있고 아이들이 숙제와 시험으로 일상이 매우 바빠기 때문에 한가로이 도서관에 들러 영어책을

읽기는 쉽지 않은 듯하였다. 때문에 그곳이 그나마 활용되는 경우도 유료로 진행되는 클래스들 덕분인 것 같았다. 모르니 덤석 시작했지 알았다면 아마 지레 겁을 먹고 다른 공간을 모색하지 않았을까...

성도님들의 귀한 정성으로 마련될 도서관이 텅 비어있는 건 상상하기도 싫었다. 설상가상으로 공간이 구해지지 않았다. 다음하우스1호만 같은 공간이면 정말 좋겠다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었으리라... 낯설기만한 부동산이 내집처럼 편해질 만큼 수시로 들락거리며 일원동 일대를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다음하우스1호만 한 곳이 없었다. 이웃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곳보다 못한 곳을 줄 수는 없다고 다들 더 찾아보라고 했지만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다음하우스1호를 영어도서관으로 쓰고 우리가 좀 불편한 곳으로 나가자는 것이었다. 완전 화들짝 놀랐다. 그래서... 더 열심히 부동산을 들락거리며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꽤 맘에 드는 공간을 찾았다. 예전에 본 집이었는데 날짜가 맞지 않고 조건도 썩 좋지 않아 포기했었는데 그쪽 일이 빨리 진행되고 조건도 우리쪽에 맞게 조정이 되어 그곳으로 결정을 하였다.

"목사님, 신앙양심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 공간도 좋습니다"  
"정말... 그러시면 그렇게 하세요"  
"넵"



영어도서관을 위한 공간계획이 끝나고 소소한 공사가 시작되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가구 발주만 남은 어느 날 밤이었다. 이제 가구 발주만 넣으면 공사는 막바지인데 맘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공사하느라 들락거리려 보니 다음하우스2호 앞에 차가 많이 다녀서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그날 밤 결국 가구발주를 내지 못하고 한 숨 속에 잠을 설쳤다. 며칠을 고민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결국 다음하우스 1호를 영어도서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공간이 뒤바뀌어 계획이 수정되고 이사를 나가고 심신이 피로해졌다. 무엇보다 영어도서관 활용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무거워진 마음은 두 손을 놓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다음하우스 주변에 사시는 초등생 아이들을 기우시는 우리교회 집사님과 식사할 기회가 생겼다. 대화를 나누던 중 다음도서관 주변 다세대 주택에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아이들이 무척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변에 있는 영어학원 버스는 모두 옆동네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것이라고... 영어는 말할 필요도 없고 기본적인 가족의 관심과 돌봄의 부재로 소외된 아이들에게 이곳은 천국 같은 공간이 될 거라든 말썬해 주셨다. 지친 마음에 다시 소망의 불이 지펴졌다.

다음영어도서관에서는 흔히 말하는 "엄마표 영어공부법"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공적으로 영어교육을 시키신, 비전문가인 집사님들이 영어전문가로 섬기실 준비를 하고 있다. 엄마처럼 친구처럼 아이들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 가는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전문가 집단이다. 아이들과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 금요일 저녁 피자도 먹으며 재미있는 만화영화도 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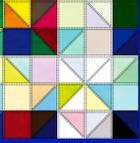
예쁘고 멋진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재미있게 들려주는 영어나이야기 시간도 있을 것이다. 귀한 영어프로그램을 기부해 주신 집사님 덕에 방송체험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또 나아가 영어는 아니더라도 이 지역 엄마들의 북클럽 모임도 꿈꿔보고 북페어를 통한 자선기금 행사도 생각해 본다.

"작은도서관으로 구청에 등록을 하려면 여러 요건이 필요한데 일단 책이 천권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도서관 등록을 알아보는 집사님께서 밴드에 글을 남기셨다. 도서를 모으기 위해 예비시간에 광고를 하자 성도님들께서 조금씩 도서를 보내주셨다.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모이기 시작한 것들이 책장에 꽤 채워졌는데 천권은 어렵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재 대략 삼천권 정도의 책이 모였고 모두 양질의 도서들로 아이들을 교육하기에 넉넉했다.

작은 도서관이 아니라 '엄청 큰 도서관'이 될 모양이다.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에게 조금씩 채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눈 앞에 주님의 손길이 보인다. 모르고 가는 길이라 은혜가 더하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라 감사함도 더하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누군가는 섬긴다는 것이 기적같다. 이곳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이제 곧 저 문을 열고 들어 올 천사같은 아이들과 마주할 생각을 하니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벅차다.

- 이 글은 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쓴 글입니다.-





# 꿈꾸게 하는 곳, 다음도서관

박선아



"집사님 수고하세요."

"오늘 첫날이라 애들이 없어 오히려 심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영어도서관 개관 첫날, 첫 봉사 시간. 집사님들과 인사말을 주고 받으며 영어도서관으로 향했다. 빨간 파랑 예쁜 소파, 가지런히 정리된 책들, 책상과 의자, 사랑으로 준비된 간사님들, 다음 공동체의 기도와 섬김으로 만들어진 도서관 곳곳이 환하게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시간쯤의 정적을 깨고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왔다. 그리고 잠시 후, 또 몇 명의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도서관을 찾아주셨다. 집사님들과 한 인사가 무색케 지면서 하나님은 역시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는 간사님들 틈에서 몇몇 어머니들에게 다가가 준비된 안내장을 가지고 도서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렸다. 학원을 그만 두시고 여기에 아이를 보낼 거라며 당찬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셨고, 어떤 어머니께서는 가입비가 얼마인지 물으셨다. 무료라 하니 의아해 하며 왜

무료냐고 반문하시기에 교회에서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 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다.

한 아이는 자신은 오디오 CD를 들으며 영어책을 보는 것이 처음이라며 헤드셋을 머리에 꽂으며 새로운 경험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고, 집에서는 저렇게 듣고 있지 않는데 애들이 듣고 있다며 좋아하시는 어머니들을 볼 수 있었다. 첫날이지만 이 모습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참 잘했구나, 우리의 예배공간보다는 이웃을 위해 먼저 공간을 마련한 것을 여기에 계신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칭찬하고 계신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잠수네 베테랑이신 집사님과 함께 어머니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어머니들과 애들을 키운 경험을 나누며 도서관에 대해 의욕을 보이시는 어머니들을 보며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 소망을 드릴 수 있음에- 아이들을 꿈 꿀 수 있게 하고 어머니들을 꿈 꿀 수 있게 헤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기쁨이 밀려들었다. 우리 다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비춘 최초의 빛



이구나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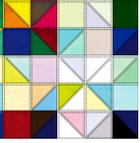
그리고 한 달이 넘어 가면서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통해 도서관에 대한 반응들이 전해져 왔다. 집이 먼데도 친구의 소개로 애들을 데리고 다니신다는 어머니, 자신은 불교신자지만 이런 것은 교회에서 정말 잘 하는 거라며 칭찬하시는 아주머니, 자신도 집에 있는 책들을 헌납하시겠다는 어머니, 늘 리스닝이 안 좋단 얘기를 들은 아이가 학원에서 리스닝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참으로 기분 좋은 소식들이다.

도서관에 대한 반응들을 들으며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다음 영어도서관을 꿈꿀 수 있고 함께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다. 먼 훗날 이 도서관을 통해 영어를 잘 배우게 되어 이 만큼 잘 클 수 있었다 감사해 하며 찾아올 아이들을 꿈꿀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 공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나오는 것을 꿈꾸며 향후 10년 아니 더 먼 미래까지 이 다음 영어도서관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실지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꿈꿀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임을 봉사를 통해 한층 더 가깝게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짧지만 영어도서관을 섬기면서 예전 순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곱씹게 되었다. "집사님 은혜는 흘러야 해요, 담아 둔 은혜는 비워야지만 새로운 은혜가 채워집니다." 하며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권유하셨다. 이 작은 영어도서관 섬김을 통해 그때 순장님의 권면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며 나눔으로 새로운 은혜가 부어짐을 말이다.

도서관 봉사는 단지 시간만 내면 되는 일이지만 작은 섬김에도 예배와 다락방에서 오는 은혜와 또 다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 혹 저희 지체들 가운데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도서관 봉사를 권해 드리고 싶다. 오셔서 아이들과 어머니들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고 꿈꾸는 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소망한다.





THE  
patchwork  
of GOD 2<sup>nd</sup>



3  
퍼센트의  
가치를 배부다



1. 어느 수필가의 "마음 속의 도깨비"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저자는 종종 자신의 마음 속에 도깨비가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가발을 쓴 사람을 보면 가발을 벗겨 보고 싶은 충동이나 평회롭게 잡자고 있는 사람을 한 번쯤 꼭 건드리고 숨어 버리고 싶은 충동, 이롭다고 완벽한 화음으로 노래 부르는 합창단이 있다면 갑자기 이상한 불협화음을 내보고 싶은 충동, 아주 조용한 도서관에 들어가면 "아~악!"하고 소리질러 보고픈 충동 등. 나도 모르는 내가 자신 안에 존재함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이 작가는 '3퍼센트의 힘'에서 소망을 찾는다며 글을 마칩니다. 소금 3퍼센트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안에 나쁜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3퍼센트의 좋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속에 사는 도깨비들이 이리저리 아우성이지만, 여전히 3퍼센트의 좋은 생각으로 인해 글을 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도깨비가 산다는 표현 못지않게, 3퍼센트의 힘이라는 말에 동감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나 세상은 이 3퍼센트로 인해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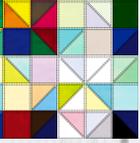
3. 지난 주에는 영어도서관 외부간판을 설치했습니다. 사실 우리교회는 학교강당을 빌려서 사용하느라, 교회간판이나 십자가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과 교제를 위한 모임공간인 다음하우스를 만들었을 때, 교회간판을 달고픈 마음도 들었지만, 이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결국 사람임을 믿기에, 무형의 교회인 사람을 세우는데 온전히 집중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새겨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지기를 바랄기 때 문입니다.

4. 그래서인지 몰라도 다음교회가 설치한 첫 간판이 세상을 섬기기 위한 간판이라는 사실에 남다른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척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은 대단한 무엇인가를 행하거나 놀라운 성과를 이루는데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3퍼센트의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때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5. 예전에 집사님들과 노인요양시설에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잘못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 일이 별로 없는데, 봉사를 마친 후 관계자 분들이 지나칠 정도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묻자 "사람이 그리웠다."고 답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타인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가장 신비한 선물은 우리 자신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6.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고 존재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마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3퍼센트의 차이가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1**





다음영어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 세 명이 모두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어를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이러한 공간을 제공해 주신 많은 분들께 글로나마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따뜻한 선생님의 도움과 배려는 저희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집 막내(5살)는 어린이집도 안가고 영어도서관에 온 적도 있습니다. 그 만큼 놀이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다음영어도서관인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미래의 꿈나무 어린이들이 영어도서관을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이 그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이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아이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항상 다음 영어도서관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 이역희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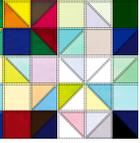
저는 일월동에 거주하며 1학년, 3학년, 5학년,  
세 명의 여자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둘째아이가 영어학원의 과다한 숙제로 힘들어 하여 학원은  
그만 두기를 결정하고서 어떻게 집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영어책 읽기를 지도할 수 있는지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던 중 우리 동네에 영어도서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관과 동시에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들러 상담을 받고  
이제는 거의 매일 다음 영어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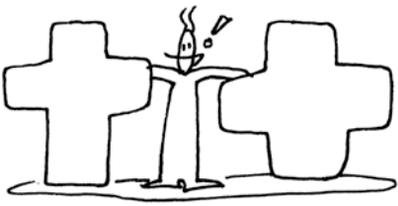
첫째아이는 학원시간 후에 꾸준히 들러서 여러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즐기듯 영어를 접하고 있고 둘째아子和 셋째아이가  
학교 후 맘껏 영어도서관에서 CD도 듣고 DVD도 시청하면서  
영어와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혼자서  
영어책을 읽기가 어려운 둘째와 셋째는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원봉사자 도서관에 찾아오는 언니, 오빠들이 읽어 주는  
영어동화책을 들으며 영어책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아이를 키우며 사교육의 부담이 컸는데 가까운 곳에서  
무요조 영어를 맘껏 접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학부모 남순아 드림



THE  
patchwork  
of GOD 2<sup>nd</sup>

문득것은   
더 해시리라

"지나가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다음영어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일원동 주민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교회에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쉽지 않을 재정을 투자해서 공간을 만들고 섬겨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생각하실 꺼라 믿습니다. 시간이 생길때마다 다음교회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많은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_강○○

1. 지난 주 인터넷 카페에 일원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남기신 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도서관 앞에 서 있다 보면 지나가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도서관에 대해 소개하면 제일 많이 묻는 것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무료로 운영된다고 설명 드리면, 그제서야 표정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 영어도서관을 개관하는 첫날 아침에 지역주민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아이가 영어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 맞벌이를 해도 여력이 안되어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는데, 도서관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도서관을 시작하면서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에게라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마음을 고쳐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기뻐 받으셨음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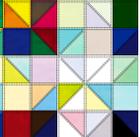
3. 사실 영어도서관을 시작할 때만해도 아무런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민했고, 선한 마음에 무작정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시작해보니 많은 것들이 필요했고 사전에 미리 알았으면 결코 시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하나씩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고 한 걸음씩 나가게 했습니다.

4. 함께 훈련했던 제자반 집사님이 갑자기 제 생각이 낫다고 목돈을 보내주셔서 도서관을 임대하고 인테리어 작업을 할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책을 보내주셔서 3천 권이 넘는 장서를 소유한 작은(?) 도서관이 되었고, 재능을 숨겨왔던(?)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갖고 헌신해 주셔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3월에 첫 계획을 세우고 지난 6개월 동안, 매 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부족함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5. 오늘날 교회가 그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의 시선이 너무 우리에게만 맞추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재정의 1/3은 늘 세상을 섬기는데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김패션후원, 탈북청소년학교봉사, 영어도서관, 그리고 이번에 중동고등학교 학생들 중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6.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증거하게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_ 마 6:33 



THE  
patchwork  
of GOD 2<sup>nd</sup>



사랑은 사랑을 향한 꿈

1. 요즘 이 땅의 교회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2.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상교회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교회 잘못되었을 때 절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지키십니다. 따라서 사람이 잘못되고, 지도자가 잘못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잘못되면 잘못되었지,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되거나 부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요, 기독교 2천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3. 그런데 주님이 자신의 일을 하실 때,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길 때 지금까지 변함없이 선택하시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한 자, 작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 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교회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다시 재충전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은 한결같이 작은 자요, 약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4.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약한 자, 작은 자를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인간의 힘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아지고 사람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나의 힘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할 만큼 작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5.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약하고 작은 자를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경도 안 쓰고 방치해 둡니다. 그렇게 방치하니 하나님은 약한 자, 작은 자를 사용하실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교회마저도 약한 자, 작은 자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6. 처음 영어도서관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올라 고민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귀한 헌금으로 하는 사역인데,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용하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큰 자, 많은 자를 주목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한 아이라도 이곳에서 배우고 공부할 수 있다면, 그 한 명의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7. 또한 중등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후원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정 금액으로 여러 명을 주기를 원하는지, 등록금 전액을 소수의 인원에게 주길 원하는지 학교측에서 질문해 왔습니다. 여러 명을 도우면 많이 돕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소수의 인원이라도 3년간 전액을 후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가 도와서 고등학교 시절을 온전히 마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8. 우리는 얼마나 작은 자, 약한 자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자인지, 그리고 얼마나 작은 자를 주목하고 있는지 되돌아 봅니다. 작은 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다른 이들을,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와 속히 이루리라"  
(사 60:22) 



컴패션 필리핀(8)에서 온 감사편지

## 하이리 크리스

다음교회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축복합니다!



이제제 삶의 새로운 여정과 이야기가 곧 시작될거예요. 저는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 제 꿈과 목표를 이루기까지 반정도 왔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저자 벌써 3학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첫 번째 주요 과제를 통과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첫 과제는 3층짜리 쇼핑몰이었어요. 저가 선배한분아에서 하고 있는 이이들을 정말 즐기고 있고 아주 많이 좋아해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작업물을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께 보내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이번 주에는 예비 시험은 칠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가 치게 될 시험에 답할수 있는 지식과 자혜를 주실 것이라 믿어요.

지난 5월에는 청년 캠프가 있었어요. 정말 멋진 기회이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제 친구들, 목사님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답니다. 강의해 주신 분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까지 해 온 활동과 다른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배구는 저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인데, 지난 6월 28일에 열린 체육대회 여자 배구 경기에서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7월 26일에는 지역 경기에 나갈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승리할수 있길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친구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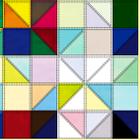
우리 가족에 대해 이야기 할게요. 제 여동생 아이비(Ivy)는 대학교 1학년이 되어 회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 동생이 즐겁게 전공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행복해요.



이반(Ivan)은 이제 8학년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저희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바쁘게 일하고 계세요. 저는 꼭 제 공부를 마치고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힘을 주시고 속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세요.

저는 요즘 여러분들 덕분에 한국어 단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는데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 영화와 드라마도 아주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해서 제 학업을 위해 다가오는 시험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다움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축복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관심을 담아 인사 보냅니다.

(편지번역 김미희)



## 치유의 밥상

두리하나 탈북학교 봉사 / 윤재임

두리하나학교는 탈북민의 자녀들이 한국을 배우고 적응하는 동안 거쳐가는 곳으로 유치원생부터 대학생, 직장인들까지 함께 기숙하면서 공부중하고 있습니다.

매일 식사 준비와 청소 등 나이 많은 순으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봉사시간 보다 인직도착하여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어린이들이 아침식사로 주먹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밥만 해주면 되겠지 하고 시작을 했지만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고 그곳의 실정은 눈으로 확인하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더 맛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기 시작하는지는 아직 연이 안되었지만 매달 만나는 아이들 표정이 조금씩 더 편안해지고 밝아지는 것을 보면 저희도 마음이 그렇게 좋은 수가 없습니다. 반갑게 맞아주고 감사인사를 건네 오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이 나눌 수 있는 무엇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납니다. 이곳 두리하나학교에는 요즘도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어린이기에 탈북하여 오랜 시간 중국에 머무다가 와서 한국말을 잊어버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낸지라 아이들은 사물에 대해 무척 경계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집사님들의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미소와 달걀부침개 공세에 아이들은 금방 무장해제가 됩니다. 이곳에 봉사하면서 안 사실인데 북에서 이곳으로 처음 오는 아이들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줘도 먹어보지 않던 음식이라 건드리지도 않고 그 아이들 입맛에 최고인 “달걀후라이” 하고 밥만 찾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 한순간이라도 더 먹고 싶어 열심히 달걀을 부칩니다.

지난번 가을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고기와 녹두부침, 동태전 그리고 여러나뭇조 추석상을 차려 점심을 대접하였습니다.

“이런 명절 음식을 어디서 먹어 보겠냐”며 아이들이 기뻐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들 먹는 모습을 보니 저희는 동태전 한쪽 먹지 못했지만 절로 배가 불러 오는 듯하였습니다. 매번 가장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여 정성으로 섬기려 애쓰고 있는데 여러 봉사팀 중에 다음 교회가 최고라는 칭찬에 더 정성껏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희들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준비한 따뜻한 한 끼 식사가 아이들이 가진 마음의 상처를 아문게 하고 새살이 돋게 하는 치유의 밥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섬김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교회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명학교 학생회 부회장 강창혁이라고 합니다.  
늘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점심식사 시간이라고 저희 친구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매일 점심 식사 시간마다 맛있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전 다음 교회가 개척하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에도 많은 헌신이 필요하실 때인데, 저희 여명학교 학생들은 늘 기억하시고 마음 써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교의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다음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시간과 헌신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상적이고 평범했던 한끼 한끼의 점심식사가 성도님들에게는 수년간의 준비와 헌신적인 노력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우리 식탁에 차려지는 점심은 단순한 한끼의 식사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갈려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 준비뿐 아니라 설거지와 각종 허드렛일까지 도맡아 받게 임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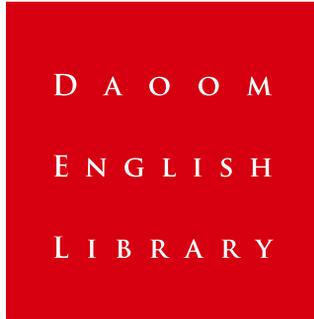
땀 흘리는 사랑과 응원 감사드리며, 저희 여명학교 학생들도 다음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 [다음영어도서관]은

지역사회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열려있는 편안한 이웃의 공부방 같은 공간입니다.  
 다양한 영어도서와 멀티미디어, 다채로운 영어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서  
 영어가 힘겨운 친구들, 영어와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영어를 통해 미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건립되었습니다.



### 다음영어도서관 프로그램

#### 1. 자기주도적인 영어학습 프로그램

레벨테스트를 통해 영어 수준을 측정하고 체계적인 개인별 학습관리 프로그램들을 통해 모국어를 깨쳐 나가듯 스스로 영어를 배워갈 수 있도록 합니다.

#### 2. P.O.P(Plus One Project) 프로그램

영어의 4가지 영역을 기본으로, 방송관련 12개 분야를 학생들이 체험하고 방송을 직접 제작해 보는 "참여형 영어교육 모델로 MC, 나레이터, 리포터, PD, 아나운서/앵커, 논평가 등의 역할을 체험해 보고 스스로 제작한 방송영상을 웹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로 개인수준에 맞는 P.O.P의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습니다.

3. 나만의 영어공부 :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 및 멀티미디어를 이용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 즐거운 주말 프로그램

스토리텔링, 주제별 프로젝트수업, Movie Night 등 다양하고 즐거운 활동을 통해 영어와 친숙해질 뿐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다음영어도서관 이용방법

다음영어도서관은 미취학부터 초중고학생들까지 무료회원제로 운영되며, 도서관에 방문하시어 간단한 등록절차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월~금/ 오전10시30분 ~ 저녁6시30분
-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개포로 124길 7번지 (옛주소 : 625-29) /Tel : 070-7591-2013





## tone down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색깔이 있듯이 삶의 모습 또한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이는 빨강, 어떤 이는 핑크색, 갈색, 회색, 검정, 노랑, 흰색... 수많은 색깔들은 어떤 색이 더 아름답고 덜 아름답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색깔의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조각보를 이룹니다.

그러나 모두가 욕심껏 색을 드러낸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없는 그냥 조각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색깔을 한 단계 내려놓고 섬김을 실천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조각보일 것입니다.

-조각보그림은 그런 의미로 제작되었습니다.

## 조각보,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2014년 겨울 / 2호

만든 날짜 : 2014년 12월 25일

만든 사람들 | 편집 : 이진미  
                  | 디자인 : 김양현  
                  | 사진 : 이시원

펴낸이 : 양승언

펴낸곳 : 다음교회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로 124길 7번지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개포로 124길 7번지 (옛주소 : 일원동 625-29) 다움하우스  
• 070-7591-2013 • [cafe.daum.net/daumgrace](http://cafe.daum.net/daumgrace)  
양승언 목사 • 010-9013-7836 • [yenet@naver.com](mailto:yenet@naver.com)

**다움교회**  
[www.daoom.org](http://www.daoom.org)